



‘살인 정권 규탄, 책임자 처벌’



▲ 2월 14일 서울역광장에서 제4차 용산살인진압규탄추모대회. [사진-민중의소리]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현 • 2 / 기고 용산참사관련 임미영 • 7 / 선생님힘내세요 사무국 • 12 / 산행기 • 김양희 • 13 / 감옥에서 온 편지 장민호 외 • 16
/ 슬픈 일이 있었어요 • 22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4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6 / 재정보고 • 37 / 화비를 내주신 분들 • 38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02)874-4063 전송: (02)888-4470 홈페이지: www.ya ngsim su .or .kr 이-메일: yangsim su @ha rmail .net

철거민들의 생존권요구를 죽음으로 몰아간 살인폭력정권 대통령사과, 서울경찰청장 등 구속·파면·구속철거민 석방, 뉴타운사업 중단을 촉구한다.

권오현 | 양심수후원회 회장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살인진압을 벌인 참사현장은 마치 시가전을 치룬 폐허 그대로였다.

참극을 빚은 남일당빌딩은 외벽이 시커멓게 그을린 채 유리창이 모두 박살났고 옥상난간에는 타다 남은 망루잔해가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불을 끄기 위해 쏟아부었던 물로 건물주변은 아직도 흥건히 젖어 있고 그 위로는 깨진 유리조각, 벽돌 나무토막 종이와 비닐 파위가 어지러이 뒤덮여 있어 진압작전이 얼마나 살벌했는지를 짐작케 했다.

건물입구마다 겹겹으로 막아서고 있는 전경들 앞에서 철거민들이 절규하고 있다. ‘저기 사람이 죽어있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말이야! 왜 못 들어가! 이 살인자들아! 그러나 경찰은 오지부동이였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 같다고 비탄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유가족마저 접근을 불허하는 살인진압에 이은 반인륜행패였다.

불탄 건물 한강대로변 앞에 조출한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흰 국화가 올려져있었다. 참담하고 침통한 얼굴들이 머리 숙여 죽음당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농성철거민 5명과 진압경찰관 1명이 희생되었다고 하지만 철통같이 외부인 접근을 가로막고 있어 농성희생자가 누구이고 부상자연행자가 몇 명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오후 2시 참사현장에서 전국철거민연합 전국빈민연

합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당 사회단체의 ‘살인진압. 이명박정권규탄기자회견,이 열렸다. 공권력에 의한 학살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서울경찰청장 등 파면 대통령 사죄를 촉구했다. 이어 이날 낮 정당 사회단체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저녁 7시에는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이명박 규탄 및 희생자(열사)추모대회’를 열었다. 살인진압 현장 책임자를 포함한 어청수경찰청장과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 서울경찰청장 파면과 살인진압을 방조한 이명박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이 이날 낮에 빼돌렸던 시신 5구를 유족 동의없이 부검하고 순천향 병원으로 옮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철거민들 두 번 죽이는 반인륜야만행패라고 분노했다. 추모행사는 이어졌다. 그런데 경찰이 불법집회라며 강제해산하겠다고 방송을 해댔다. 살인진압에 사죄는커녕 추모행사마저 방해하는 비정함과 과렴치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행사를 마치고 1,500여명의 참가자들은 자발적인 추모행진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곤봉과 방패로도 모자라 물대표로 맞섰다. 참사현장의 첫날 모습이었다.

용산철거민 참사는 집회와 시위 등 민중들의 기본권 행사에 철권을 휘둘러온 이명박정권의 공안통치방식이 불러온 예고된 비극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입버릇처럼 말해왔고 신년사에서 ‘폐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을 우리 사전에서 지위버리자'며 공권력을 통한 민의제압을 예고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보장을 하겠다.'며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독려했고 임채진 검찰총장 또한 신년사에서 '노사분규나 불법집단행동이 대폭 증가할텐데 '선제대응'하고 '불법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 했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살인진압이 있기 하루 전 기자회견담회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집회·시위문화'를 바로 잡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마침내 농성진압에 특공대투입을 최종 지시했다. 지난 해 촛불집회를 무자비하게 폭력진압하면서 청와대의 신뢰를 얻어 경찰청장내정자가 된 터에 또 다시 능력을 보여주려 했다는 여론의 호된 비판은 정당했다.

경찰은 철거민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 3시간 반 만에 경찰특공대를 현장에 배치했고 25시간 만에 살인진압을 강행했다. 용산4구역 재개발지구철거민 30여명이 철거에 앞서 임시주거와 생계를 위한 임시시장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것은 19일 새벽이었다. 농성 철거민의 요구에 대해 용산재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용산구청(장)이나 감독기관인 서울시청(시장), 4구역 재개발조합 그리고 삼성물산 등 시행자 어느 쪽도 세입철거민들과의 대화나 협상의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경찰 또한 농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설득이나 협상중재 등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전.의경 3개 중대 300여 병력과 물대포 5대 사다리차 2대 형사기동대 5개 중대 112타격 팀을 전격 배치했고 철거용역직원들과 함께 농성진압에만 집착했다. 철거용역들이 농성건물에 진입 나무와 페타이어 등을 태워 농성자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농성자들에게 물대포를 쏘아대는 강압적 자세만 보였다. 이에 맞서 화염병으로 진압을 막아 나섰던 농성철거민들은 오후 6시쯤 전국철거민연합을 통해 자진해산할 터이니 경찰병력 철수를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오후 서울 경찰청은 김석기청장과 김주

성차장을 비롯하여 기동본부장 정보부장 용산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농성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했다. 이어 20일 6시경 엄동설한 아직도 어둠이 걷히지 않는 시간에 전격적인 진압작전에 들어갔다. 어떤 정치적 목적의 테러나 납치 인질 따위도 아닌 서민들의 생존권요구를 마치 섬멸해야 할 적이라도 되는 듯이 옥상망루에 차가운 물대포를 쏘대며 특공대가 건물에 침투했다. 또한 다른 특공대는 컨테이너 박스에 실려 기중기를 통해 건물옥상에 진입했다. 이같은 과상공세에 농성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과연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밖에 다른 수단이 없었는지 소름끼칠 모습이었다. 컨테이너박스에 부딪힌 농성망루는 화염에 싸였다. 불길을 피해 옥상난간에 매달렸던 철거민이 끝내 매트리스로 없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참혹한 장면이 동영상에 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용산참사는 철거민의 요구를 외면한 과잉진압과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외면한 채 법과 질서만을 내세운 공안통치의 소산이었다. 성급한 진압결정에다 인화성위험물질이 농성장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무런 안전조치없이 토끼몰이 식으로 진압작전을 강행했다. 농성현장은 이미 철거된 건물로 어떤 공무집행이나 영업방해장소도 아니었고 테러 인질 등 사회불안행위가 아니었다. 오직 세입자의 절실한 요구 생존권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을 뿐이었다.

더구나 동절기엔 철거가 금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사이 중립을 지켰어야 할 공권력이 사업자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살인진압을 자행했다. 2002년 상도2동 재개발지역 철거민들이 망루투쟁 1년5개월이나 진행되었지만 2004년 1월20일 시행자와 동작구청이 세입자들에게 적정한 보상금과 임대주택임주권을 주기로 약속을 하여 농성을 풀고 경찰에 자진 출두했던 예가 있다.

가장 무모한 행동은 인화성물질이 있음을 알고서도 강제진압에 나선 행위이다.

경찰은 농성장에 염산병 약 100개 시너 20리터 60여개와 화염병 5박스 등 인화물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서명한 경찰문서)했었다. 경찰의 '집회 및 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에 따르면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는 경우 '화염병소진'을 유도하고 거의 소모된 뒤 검거작전을 펴도록 규정되어 있다. 2005년 오산 수청동 세교택지개발 지구의 철거민 농성장에서는 경찰이 두 달 동안 위험물질이 소진되는 것을 기다렸다는 사례가 있다. 또한 매뉴얼은 '고공농성'에 대처하여 낙하적정지점에 안전매트나 안전그물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유류화제'에 대비 화학소방차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엔 매트리스를 설치하거나 화학소방차도 없었다. 불이 나거나 사람이 떨어져 생명의 위험이 내다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성진압'만 하면 된다는 반생명 반인권의 야만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등을 그 임무로 하고 (경찰법3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되었다.(같은 법4조) 바로 경찰은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기본권보호 등 임무와 직권남용의 금지 등을 지켰어야 했다. 그러나 시위현장에서의 경찰권 발동은 최소화하는 원칙을 저버리고 있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만이 최선으로 여긴 것이다. 그것은 이번 살인진압의 최종승인자인 김석기 경찰청장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그는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경찰총수를 경질해야 한다는 말부터 나와 법질서확립에 나섰던 전체경찰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했으며 '나는 경찰로서의 원칙을 지켜왔다.-개인적으로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그건(원칙) 양보할 수 없다.' 고 했다. 엄청난 참사에 대한 눈곱만큼의 반성의 빛도 없다고 언론들이 지적했다. 마치 법과 질서가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 기본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마저도 법과

질서 확립을 위해 내놓아야 할 판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추구할 더 큰 '가치'가 인간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라는 비탄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용산철거민들은 왜 그 추운 엄동설한 속에 망루농성을 해야 했는가. 반드시 짚고 갈 문제이다. 한마디로 재개발사업에 따른 강제철거로 정당한 보상 없이 삶의 터전에서 그냥 쫓겨날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 53.441㎡의 면적을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6.4.20일이었다. 그 뒤 2007년 2월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었고 같은 4월 용산구청은 지하 6층 지상 35층 규모 주상복합빌딩 7동을 짓기로 한 재개발사업을 승인했다. 그리고 10월 재개발 조합이 세입자들과 법에 규정된 협의나 보상 없이 용산구청에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주었다. 이러한 조치에 세입자대책위의 항의를 받은 용산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절차는 세입자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며 땅주인, 집주인 위주의 조합편 주장만을 들어 2008년 5월 최종허가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철거세입자는 '철거에 따른 정당한 감정평가에 따라 영업 손실과 이주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용산구청이나 조합, 시행자는 이를 외면했다. 박용산 용산구청장은 세입자들을 '떼집이들'이라고 망언까지 했다 이어 2008.7.16일부터 조합이 선정한 용역회사에 의해 강제철거가 시작되면서 세입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되었다.

성북주거복지센터가 추산한 '용산4구역개발이익'을 보면 이 지역 조합원 1인당 평균개발이익은 5억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겨레신문 1.29) 이에 반해 주거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와 이주비용으로 가구당 평균 1,680만원 상가세입자들은 휴업보상금 등으로 2,5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감정평가에서 권리금은 아예 빠지고 시설비도 일부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식당을 경영해온 어느 상가세

입자는 권리금 4,500만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들였으나 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2760만원이었다. 또 다른 세입자 이 아무개 씨는 휴업보상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나왔으며 7,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0만원만 주고 나가라고 한다고 개탄했다. 그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들로부터 도 끊임없는 철거협박을 당해야 했다.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에 들어와 폭언, 폭행을 자행하고 윗층에서 물을 흘려보내는가 하면 근처 건물에 상주하며 주민들이 지나가면 욕하고 협박하고 끔직한 시체사진 등으로 겁을 주기도 했다. 대부분 주거 또는 상가세입자들은 조합에서 받은 보상금으로는 재개발정으로 엄청난게 오른 이 지역 어디에 가서도 살림방이나 상계를 위한 가게를 얻을 수가 없었다.

이 같은 재개발사업은 땅주인과 집주인 토공·주공 등 대행기관 시행사 투기세력들만 살찌우고 집도 땅도 없는 세입자들은 수십 년을 원주민으로 살아왔지만 끝내는 투자했던 돈마저 날리고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뉴타운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는 ‘뉴타운대박 꿈은 국민사기극’이라며 ‘서민들 내쫓는 뉴타운 사업 당장 중단하고 공익사업에 준하는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면 엄청난 개발이익을 사회공공기관에서 흡수하여 지정구역내의 생활환경개선과 세입자들에게 최소한 주거와 생업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했다.

세입철거민들의 또 다른 고통은 옮겨갈 집도 가게를 얻을 돈도 옮길 비용도 없는데다 한겨울에 철거를 옥박 질당하는 일이다. 2008년 11월 서울시는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세입자 대책에서 동절기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했고 부득이한 경우 구역 내 일정장소로 이주 후 철거하기로 각 사업장에 지시한 바 있다. 그리고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철거가이드라인’에서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악천후(동절기 포함)나 야간 철거 등을 금지하는 등 철거에 대한 8가지 세입자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용산현장의 경우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동절기 새벽에 국민을 상대로 한 강제진압으로 여섯 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했다.

이처럼 공권력의 과잉진압으로 끔직한 참사를 내어 온 나라가 슬픔과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두 주일이 지났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아직도 대국민 사과나 책임자문책, 재발방지책에 입을 닫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SBS-대통령과의 원탁대화-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나와 용산참사에 대한 패널의 질문을 받고 ‘용산문제는 정치적 이유로 해서<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다른 문제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책임있는 사람들의 할 짓이 아니다’라며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면 된다—이런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앞 뒤 안가리고<해결>하면 공직자들이 누가 일하겠는가.”라고 했다. 언뜻 들으면 ‘늘 있는 어떤 사고’ 정도로 인식하는 모습이다. 고인에 대한 명복이나 유족들에 대한 위로와 사죄 국민에 대한 사과는 커녕 의례적인 유감표명조차 없었다. 더구나 용산참사를 빚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공직자의 정당한 법집행이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려 한 모습이기도 했다.

또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내정철회를 할 때가 아니다—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연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뽑은 대통령인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자연재해로 참사를 당해도 희생자들에 대한 의례와 함께 대통령의 부덕을 탓하며 행정책임자에 대한 도덕적 행정적책임을 묻는 것이 국정최고 책임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덕목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다 드러난 과잉진압을 따지는 유족들과 정당·사회단체에 대해 가시둔힌 정치말언만 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비정하고 적반하장이다.

이러한 적반하장은 정부·여당에서도 이어졌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사건의 원인과 경위를 신속하고 철저

하게 조사하겠다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했다. 에이포용지 한 장의 담화문에서 ‘불법점거’ ‘불법폭력행위’ ‘법과원칙’ ‘법과질서’ 등 용어를 반복하는 것으로 대부분을 채웠다. 또한 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은 ‘성급한 진압이 아니라 불가피한 진압’이었다며 김석기 서울청장을 옹호했고 신지호의원은 ‘전국철거민연합이란 반(反)대한민국 단체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자행된 도심테러’라며 ‘고의방화도 배제못한다’고 했다. 이를 받아 이인기의원은 ‘자폭으로 죽었으면 어떻게 경찰에 책임을 묻겠냐—다 죽는데—’라고 했다. 이은재의원도 ‘정부를 흔들려는 극렬세력들의 불법시위를 용납하는 것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이 배후에 고정간첩이 있다고 한 말이 연상된다. 아무리 국회의원 발언이 면책된다하지만 몰상식과 사실왜곡을 넘어 고인들을 두 번 죽이는 반인륜행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이러한 상황인식은 사법당국의 행보로 이어졌다.

경찰과 검찰은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형사소송법 등을 어기면서 일방적으로 시신을 빼돌려 유가족이나 유가족의 지정된 입회자없이 불법부검을 자행 고인들의 존엄성을 훼손했다. 그리고 경찰은 농성철거민들을 ‘현주건조물 침입과 방화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1차장)은 ‘화염법치벌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혐의를 그대로 인정 용산4구역 철거민 2명과 전철연회원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망루에 남아있던 6명 중 3명에게는 화재 원인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혐

의’ 2명에게 ‘화염법치벌법위반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수사본부장은 ‘경찰관은 공무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까지 했다. 검사 7명과 수사관 3명으로 구성된 거창한 수사본부가이틀만에 내린 결론이었다.

그리고 망루에서 참화를 당한 이상림고인의 아들이며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인 이충연씨는 옥상에서 추락하여 척추와 다리에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농성주도혐의로 구속하는 야만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전철연 남경남의장을 같은 혐의로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고 사전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있다.

참사 14일을 맞은 현재 공안 당국은 용산참사를 철거민들의 과격시위로 몰아가며 철거민들과 전철연에 대한 집중수사를 하면서도 살인진압을 자행한 경찰측 특히 진압최종승인자인 경찰청장 내정장인 김석기서울청장에 대해선 아직도 출석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건의 은폐조작 의구심을 떨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한다.

-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생존권보장에 최선을 다하라
-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과 서울경찰청장 등 살인진압 책임자들을 구속 파면하라
-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구속자를 석방하고 전철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부자만 살리고 원주민 내쫓는 뉴타운 사업 즉각 중단하라

이 글은 2월 4일 '민중의소리'에 실린 특별기고문입니다.

열사들에게 삼가 얹드려 절 올립니다.

임미영 | 양심수후원회 사무국



검찰 수사발표 후 장례식장에서 열린 유족들의 기자회견 모습

용산학살이 일어난 지 20여일 만인 2월 9일 검찰의 수사발표가 있었다. 두 말 할 필요 없이 날조된 수사 발표였다. 유가족들은 열사들을 두 번 죽인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기자들 앞에 섰다. 유가족들은 검찰 경찰이 그 많은 증거들이 백일하에 드러나 있는데도 원론 하나 깜짝 앓고서 진실을 덮어버린데다가 난데없이 땅에 묻히지도 못한 억울한 죽음들에게 도심테러단이라는 오명의 관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에 대해 입술을 깨물며 이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노라는 결의로 내보였다.

검찰은 그야말로 불 보듯 뻔하게 드러나 있는 이번 사건의 전말을 용산철거민들에게 뒤집어씌우기에 급급하였다. 그들의 사건조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였다.

<육하원칙>에 의해 즉 언제-2월20일 새벽, 어디

서- 한강로4가 남일당빌딩 망루에서, 누가- 용산철거세입자들이, 무엇을- 화염병을 왜 -돈 더 받아내려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위협적인 도심테러에 대한 정당한 방위로 진압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조사를 끝냈다. 그것에 더하여 혹시 비과학적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하여 초등학교생들도 웃을 새총실험이니 하고 수선을 떨었다.

유족들은 검찰의 수사발표내용을 이미 예측한 듯 차분하게 기자들의 물음에 심정을 털어놓았다.

19일 아침부터 이미 20차례가 넘게 용역들이 아래층에서 불을 질렀던 것

용역들이 폴리스야 방패를 들고 있었고 그 용역과 경찰들은 이미 하달된 지시(각본)대로 움직였고 상호

보조를 맞춘 상태에서 진압은 두 시간 만에 끝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던 것

망루에 불이 붙었을 때에 희생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불을 피해 옥상으로 나와 있었던 것

그런 사람이 불타고 있는 건물의 4층과 2층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이 진실이 이미 동영상이나 희생자 측의 철저한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라면

학살이 저질러진 뒤에 철저히 죽음에서 차단되어 있다가 너무나 늦게야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행 그 자체였다.

시신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그렇지만 불에 타서 죽었다면 어떻게 입술모양이 그대로 있을 수 있었겠어요.

심지어 속살은 하얗게 그대로였어요. 목숨을 앗아간 화마였다면 몸이 그렇게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없어요.

장갑을 벗으니 지문이 그대로 다 있었어요. 발도 타지 않았어요.

그들이 시신부검을 한 유일한 이유는 죽은 사람의 신원을 어떻게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데 시신에서 나온 신분증은 무어란 말인가요.

라이터가 멀쩡하게 두 개씩 나왔어요. 주머니에서 나온 집 열쇠가 플라스틱이었는데 그것조차 타지 않았어요. 또 한 사람 21일까지도 신원미상이라고 했는데 얼굴과 상반신은 불에 탄 흔적도 없이 옷 속에서 용산구청에서 보내온 공문서가 나왔어요 또 숫제 지갑도 나왔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왜 그들의 신분을 알아 낼 수 없다고 했을까요?……

나는 30년 같이 산 내 남편 알아보지 못했어요.

두개골은 갈라지고 손가락을 부서져있고 몸뚱이는 다 갈라져서 구멍이 숭숭 뚫려있었어요.

그들은 각목과 쇠파지와 전기톱으로 죽여 놓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불에 그슬었던 거예요

불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불에 타기 전에 죽어있었던 거예요.

유가족들의 증언을 듣는 동안 모퉁이 송연하고 분노가 침을 마르게 했음은 말할 것도 없이 무엇보다도 그들이 아무것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다는 것에, 아니 그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것에 수치심이 느껴졌다.

검찰은 사건이 경찰특공대에 의해 일어난 학살이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우선 서둘러 사건조사를 급미무리하여 김석기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희석하려 그들에게는 미리 계획된 수순이었던 전철연을 배후로 지목함으로서 대대적인 검거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그들은 권력과 금력 또 그 권력과 금력의 하수인들과 한패가 되어 선량한 시민들을 사지로 내몰 적에, 가진 것 다 뺏기고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유일한 이웃이 되어주었던 전철연에 몰매를 가함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상림(70세), 양희성(55세), 이성수(50세), 윤용현(48세), 한 대성(52세)열사의 죽음이 아직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경찰은 전철연의 농성자들을 그가 병상에 있든지 가족을 잃은 고통 중에 있는지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명목으로 구속수사를 서둘렀다.

이것은 역으로 경찰이 용산철거민들에 죄를 뒤집어씌워놓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증거를 인멸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살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갈래갈래 찢어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 그 현장의 생생한 증거가 되는 산자들을 잡아가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을 수장으로 하는 자본가권력들을 학살자 나아가서는 파쇼잔당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건물 점거 시위가 진행 중이던 19일에도 대책위 철거민들은 전철연 관계자를 통해 경찰병력을 철수하면 모두 내려와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제의했으나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철수는 안 된다고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만일의 사태>라는 것이 바로 철거민농성자들을 망루에 고립시킨 채 대테러특공대의 비열하고 잔혹한 폭력 앞에 고귀한 목숨을 굽주린 늑대에게 던져주듯이 던져주었다.

이번 학살을 현장을 총지휘한 김석기는 시종일관 학살진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겨우 생각해낸 거짓말이 무전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조삼모사라고 그것은 진압명령을 내린 것만큼이나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도대체 똥오줌을 못가리는 인간이라는 것을 좌우 위아래로 머리를 다 굴려 숨기려해봐야 다 폭로되고 말았다. 그리고 학살현장에 나온 김석기는 피해자가 많이 생겨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고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은 <이유를 불문하고>본의 아니게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고개 숙여 명복을 빈다고,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민 여러분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명박은 청와대에 앉아서 너무나 애석하여 내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노라고 말해 짐짓 이번 사태를 관망하는 여유를 부리며 그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돌리는 과립치함을 내보였다. 또 국회의원 뱃지 달기 전부터 쉼 소리 지껄이던 신지호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 없이 말했다 '전철연은 반국가 단체'며 그들이 도심테러를 자행했다라고…….

지금쯤 이런 멍청한 말들에 속아 넘어가는 족속들은 이명박 패당과 신자유주의의 똥자루를 베고지는 자본가들 뿐이겠다. 그 똥자루 베고 누운 채 썩은 냄새조차 맡지 못하고 자기가 누운 자리가 멸망의 나락

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 전조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이미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난파선의 신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신지호 제 입으로, 자본가정권의 <일방적 폭거>를 분쇄하고 노동자민중세상 쟁취하려는 사람들을 반대한민국단체라고 한 이상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이런 파쇼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언제나 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사람의 목숨은 자본정권의 더러운 탐욕 앞에

<살려고 올라가 죽어서 내려왔다>! 이런 비통함이 또 어디에 있을 것인가

자본의 거대한 욕망 앞에 속을 다 비워낸 건물 위에 한낱 거푸집 같았던 망루는 놈들의 표적이 되어 잔인하게 짓이겨졌다. 불에 검게 그을린 주검은 경찰의 뒤늦은 철통 보호(?)아래 경황없이 울부짖는 가족들을 따돌린 채 창백한 병원의 부검실로 옮겨져 다시 구역질나는 폭력으로 생명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이 날 날이 찢기우고 말았다.

살아서 이리저리 내돌림 당하다가 죽어서도 철거민들은 <상부의 지시>대로 탈취당하고 <상부의 지시대로> 유린당하고 말았다.

그들을 죽인 것은 불이 아니었다.

누가 굶어 죽었다고 밥에게 죄를 물으려는가!

누가 칼에 찔려죽었다고 칼에게 죄를 물으려는가!

그래서 검찰은 열흘이 넘는 수사 끝에 그 죄과를 죽은 사람들에게 떠넘기고서 파쇼의 수장들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고 신나통과 화염병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

화염병이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었다고

신나통이 무기가 되었다고?

그래서 대테러경찰특공대로 하여금 허공에 매달린, 매달려서 살아보겠다는 외침이었던 망루를 공격하게 하였다고?

파쇼들의 총칼은?

인간의 생명도 사고파는 자본가권력의 가공할 무기
는?

누가 파쇼들의 수괴인가

한강로3가의 개발은 삼성의 주도아래 국내의 내로
라하는 거대건설재벌들이 거의 참가하는노른자 중에
노른자인 재개발사업으로, 이 개발로 하여 삼성이 얻
는 이익만도 1조4천억이 된다고 한다. 일반 민중들의
상상을 불허하는 이 초유의 이익금은 그렇다 치고라
고 그들이 말하는 ‘내 돈 내 마음대로’ 라는 공식을 철
거민들은 깨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애초에 공평무사
는 바라지도 않았다. 철거민들은, 이곳에서 살아보겠
다고 고스란히 들인 돈 달라는 것이었다. 그 요구는
저들의 논리에도 어긋난 것이 아니었다. 임대업자들
은 자신의 상가를 돈받고 빌려줄 때는 그곳에서 일정
한 기간 동안의 영업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기간을 보장해줄 수 없으면
그만큼 돌려달라는 것이다. 용산의 박아무개 구청
장이 말하는 때잡이는 그래서 그 스스로 때잡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 되었다. 때잡이로 굴린 재산이 삼
십억을 넘은 구청장 입에서 그런 구린 말이 나오는 것
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말이다.

자고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개발이라는 것은 대부
분 돈지랄에서 시작하여 돈지랄에서 끝난다. 특히 도
시지역개발이라는 것은 그 무슨 주거 환경을 개선이
니 삶의 질 개선이니 하지만 결국 다 자본가들의 개수
작들이다. 삶의 질은 가진 돈과 평수만큼 보장되고 공
원이야 백화점이야 문화공간이야 하는 것은 모조리
가진 평수만큼 누릴 수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의한 임대아파트 비율은 겨우 17%의 하한선
을 정해놓고 개발이익에 혈안이 된 자들이 임대아파
트 짓기를 건성건성 하여 고급아파트 한 칸에 인색하
게 그것도 낮은 비율로 지어진 임대아파트는 그야말
로 주인집 대문간 소죽머리방에 머슴살이하는 모양
새이다. 모든 시스템이 중대형고급아파트에 맞춰져

있는 온갖 호사스런 시설물들은 누릴 엄두도 못내고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아득하니 하늘로 치솟은
빌딩은 피할 수 없는 암울한 그늘이 될 뿐이고 그곳에
서 그들은 행복을 강요당하며 살게 될 뿐이다.무엇보
다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 때문에 아예 입주
를 포기한 원주민들은 살던 땅을 떠나 낯선 곳으로 내쫓
기다시피 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허름하나마,
좁은 집이나마내 집이 되어 그나마 적은 수입으로도
살아낼 수 있었던 원주민들의 삶을 통째로 불안 속에
내던져지고 마는 도시재개발은 바로 삼성과 같은 거
대건설자본가들의 돈놓고 돈먹기 식의 투기장이 되
어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주택
문제는 일찌감치 부도덕한 거래의 소굴로 변하고 마
는 것이다. 이 모순을 깨부수지는 못할 망정 이에 더
하여 책상머리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알량한
경제학자들과 매번 자본의 막강한 힘을 떠받드는 데
복무하는 정치판의 어중이떠중이들은 시세차익의 사
유화에 대한 규제니 이익금의 환수니 제투자니또 완
급을 조절하자는 등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요 귀
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으
로 바로 자본권력가들로 하여금 더 만지르하고 세련
되게, 착취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검찰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결과로 그자신
이 말하는 <불명예>를 씻고 사퇴하는 김석기는 기
자회견장에서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후회가 아
닌 자리에 대한 강한 미련으로 눈물을 흘렸다.가관이
었다.

그런 김석기가 이 학살을 지시한 상부인가?

그는 상부가 아니었다. 상부가 아니었으므로 이명
박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고 감사의 눈물의 흘리며 자
진사퇴란 형식으로 이 사건의 후폭풍에서 빠져나갔
다.

그러면 김석기가 물러난 것을 그토록 아까워한 이
명박인가.

적어도 우리가 지난 일 년 동안 아니 그 전 서울시
장 재직시절부터 지켜봐왔지만 아무래도 최고의 상

부가 되기에는 그는 너무나 모자란 사람이었다.

머리에 든 것이라는 콘크리트 운하 자기가 믿는 신 이런 것으로 가득차 있는, 껍이나 낮은 수준으로 하여 자국민들을 너무나 (속된말로) 쪽팔리게 만들어왔던 사람이었다. 뇌는 있으나 뇌의 구조는 무언가 석연치 않아서 사람의 것인가 싶기도 했다.

상부는 바로 자본가들이다.

인간사회의 평화는 평등에서 온다. 그 자본가들이 권력의 중심에, 상층부에 있는 한 인간은 결코 평등해질 수 없다. 천부인권설이라하여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다지만 그것은 허구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의 태생 자체가 불평등하다.

다만 별거벗고 태어난 것을 일컬어 평등한 출생이라고 우기자면 지금 우리가 옷을 걸치고 세끼 밥을 먹고 하니 평등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또한 언제 법 앞에서 평등했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나라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바로 현재 착취의 방법을 최고도로 발전시킨 신자유주의를 표방

하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자본은 그 자체로 폭력적일 수밖에 없고 보면 이런 용산학살을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허다하게 있었고 또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 틀림없다.

자본의 가공할 폭력 앞에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안 이상 우리는 이 폭압적인 사건의 산 증인이 되는 일과 동시에 그것을 알려내는 일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감히 전복을 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첫째 조건도 둘째 조건도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는 오로지 단결이다.

단결 앞에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드디어 적의 것이 되어 그들은 잠깐 미쳐 날뛰다가 서서히 몰락할 것이다.

오늘 이 학살의 희생자들은 비록 난자당한 죽음이었지만 우리의 강고한 투쟁의 열기로 영전에 향사하면 열사들은 온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시는 글

3월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127회)

■일 시 : 2009년 3월 10일(화) 오후 6시

■장 소 :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광화문 우체국 6층)

■작 품 명 : 조선의 별 1부(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80년 제작, 90분 상영)

■줄 거 리 :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젊은 날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투쟁 모습을 그려낸 이북의 대표적인 혁명영화. 제1부는 주인공 김혁이 만주 길림에서 일본군의 철도건설 반대투쟁을 지휘하는 김성주를 만나 그의 사상과 행동에 감동받아 공산주의자로 변신,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창작·보급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문 의 : 한찬욱 (016-235-5631)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손영심 선생님 힘내십시오!

전쟁시기 젊은 지성의 여전사로 입산하여 치열한 삶을 살아오셨던 통일원로 손영심선생님께서 어느 순간 몸 속에 침투해온 암세포를 상대로 힘든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해 5월경부터 때때로 열리 오르고 기침을 하는 증상이 있었지만 감기정도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지내오시다가 새해 들어 증상이 심상치 않아 1월 중순께 여의도 성모병원 등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한



결과 폐암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한남동 순천향 병원에 다시 입원하시어 폐에 고였던 물을 빼내고 본격적인 방사선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2월 18일 뒤늦게 선생님 병실을 찾았을 때는 이미 열 두 번 째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뒤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선생님은 고통을 온몸으로 보듬어안고 계시면서도 환자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되려 환한 웃음 속에는 지금 시국에 대한 근심과 우리를 격려함으로 스스로 강한 투병의 지를 다지고 계신 듯 했습니다. 바로 불굴의 의지로 역사의 현장을 치열하게 지켜내셨던 역전의 전사답게 암세포 쫓은 반드시 물리치시겠다는 그러한 투병 의지였습니다.

손영심선생님은 1931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셨고 담양에서 자라셨으며 광주사범 학교를 졸업하신 뒤 초등학교 교사로 사회에 입문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학진학을 위해 다시 전주여고에 편입학하여 대학 입시준비를 하시던 중 6.25전쟁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미 재학당시부터 찬탁,반탁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싸웠던 현장에 뛰어들 정도로 민족의식이 투철하셨던 선생님은 전쟁시기 광주시당에서 일하시게 되었고 9.28 이후 광주시당과 함께 무등산에 입산 문화지도원으로 활약 하셨으며 다시 지리산 백아산 등으로 옮기면서 백운산에 있었던 도당에 소환 선전부 지도원으로 일하셨습니다. 당시 도당 선전부장은 2000년 복

별세하신 류운형선생님이셨고 부부장은 도당 노동신문 주필을 겸하신, 2008년 '남도 빨치산'과 '전남유격대'를 파내신 정관호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1950년 가을부터 1954년 2월 체포될 때까지 눈덮힌 산하, 열사의 계절을 네 번이나 보내셨고 끊임 없이 이어지는 대공세의 빗발치는 총탄세례를 이겨내며 역사의 현장을 지키셨습니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든에 가까운 연세에도 불구하고 통일조국에 대한 강고한 신념을 단 한 번도 저버린 적없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일운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양심수후원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1차 방사선 치료(15회)를 마치시면 퇴원하시어 집에서 요양하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강한 투병의지가 있는 한 반드시 완쾌하실 것입니다. 부디 건강회복하시고 선생님이 그리시는 자주 통일 세상을 반드시 오늘 같은 그 환한 웃음으로 맞이하시길 빌겠습니다.

마가목주와 함께한 산행

김양희 | 통일뉴스기자



헉~헉~하악하악~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잠깐 한눈 판 순간 앞사람과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저 고개만 넘으면 목적지에 다다르겠지 했으나 막상 다다르고 보니 전혀 '아니올시다'다. 아직도 한참 더 무거운 몸을 이끌어야 했다.

‘아! 쟤장, 어디까지 가야 도착하는 거야?’

질~질~~질~~~

숨이 턱까지 차도 천근만근한 발을 하나씩 옮기다 보니 저 멀리 드디어 목적지에 다다른 일행이 보였다. 드디어, 드디어 도착이다.

벌써 도착해서 한숨 돌리고 있는 일행에 나도 합류를 해 가쁜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다시 출발이다. 지금 도착한 곳은 산 정상 이 아니라 등산로 입구다.

9시 길음역에서 일행을 만나 9시 20분경 출발했는

데 한 시간 여가 지난 이제 국민대 앞의 등산로 입구에 도착한 것이다.

등산을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지친 나는 사실 몇 번이고 버스를 타고 오고 싶었다. 특히 목이 마르다며 잠깐 가게에 들른 나는 도저히 앞선 사람을 따라 잡을 수 없었다. 혼자였으면 분명히 차를 타고 갔을 터이지만 나와 함께 뒤통지 준 통일뉴스 오창근 운영위원님의 격려에 끝까지 함께한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주말, 늘어지는 잠을 포기하기 힘든 마음에 나는 등산을 가자고 하면 그리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좋아하고 힘들게 산에 오른 후 땀을 식히며 마시는 막걸리 한잔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기 때문에 누군가 산에 가자고 하면 거절하지는 않는 편이다.

이런 가운데 통일뉴스에서 6.15한마음통일산악회의 신년 산행을 취재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산상강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이유로 난 6.15 산악회를 참 좋아했다. 산악회의 처음 결성 시부터 함께 했기에 꼬박꼬박 참여해 건강도 다지고 할 생각이 컸다.

그러나 이날의 산행은 사실 좀 무리였다. 신문사에서 신년 특집 준비로 바빠 내내 무리를 한테다 전날에는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반가운 이들과의 만남에 날이 새도록 술판을 벌인 탓이었다.

다른 때 같으면 늘어지게 자면서 ‘앗 늦게 일어나 어쩔 수 없네’ 하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 산행은 신년을 맞은 첫 산행이며 장기수 어르신 댁에서 신년덕담을 듣는 시간도 마련돼 취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산에 올라야 했다.

2001년 8월에 기자 일을 시작했으니 벌써 8년차 기자가 됐다. 좋은 사람들에게 편지쓰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시작한 일이 바로 기자였다. 처음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 기자 일을 오래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소위 ‘까는’ (나쁘게 쓰는) 기사는 물론이고 한 대상을 좋게 기사를 쓰더라도 분명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곳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기자는 남의 등을 쳐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나는 누군가에게 늘 상처를 주는 기자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몇 년 하다 꼭 관둘 것이다 다짐했다.

그런데 한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던 도중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을 경찰이 밀어 넘어뜨리며 폭행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게 됐다. 당황한 경찰은 나의 카메라를 막으려 하며 나에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그때 문득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기자의 힘을 정의로운 약자들을 위해 평생을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나는 아주 늙은 꼬부랑 할머니가 되더라도 카메라와 펜을 들고 현장을 누비는 기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 짝이 되는 사람의 조건으로 ‘신혼여행지에서 취재끼리가 있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추가했다.

신혼여행 같은 단 한번 뿐인 순간에도 취재끼리가 있다고(물론 신혼여행에 버금가는 비중 있는 취재겠지만) 뛰어나가고 또 그런 나를 이해해준다면 정말 멋진 것 같다는 순진한 상상을 하는 것이다. 그만큼 내 일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런 정도이니 객원기자지만 통일뉴스의 취재지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깊은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무리가 됐어도 어떻게든 기를 쓰고 나왔다.

그래도 그렇지 한 시간여 자고 산에 오르는 내가 스스로도 신기한 동시에 속으로 ‘독한년’, ‘진짜 독한년’ 몇 번을 욕했는지 모른다. 독하게 마음먹고 나온 산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체력이 떨어져 산행에서 늘 뒤쳐졌던 것이 사실이다.

예전 통일뉴스 산행 때 가뜩이나 험한 곳으로 골라가는 것만 같고, 산 정상에서 갑작스럽게 눈과 비가 마구 와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인 상황에서 하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땐 정말 힘들었다. ‘아~ 통일은 쉬운 것이 아니구나! 정말 통일뉴스와 함께 하면 정말 힘들고 험한 일이 많겠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니까.

그러나 지난해 12월 산행은 갑작스러운 눈에 미끄러워 다치기도 하는 등 고생을 많이 해 한번 나오지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도 이번엔 그리 미끄럽지 않아 그나마 쉽게 오를 수 있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번 산행은 산상강연이 없고 장기수 선생님댁 방문 일정이 생략되면서 취재가 취소가 됐다. 워낙에 허술한 사람인지라 기사를 써야 한다고 하면 나름 눈 뚱그랗게 뜨고 집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정신을 반쯤 빼놓고 다녀 이번에도 바로 늘 뒤쳐지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게다가 길눈까지 어두워 어느 등산로를 어떻게 다녀왔는지조차 알 수 없다. 다만 권오현 회장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등산 코스가 영불사를 지나 동형제봉능선을 지나 형제봉을 우회해 보현봉을 향해갔고 일선사 입구를 지나 대성능선을 따라 청수천 계곡으로 하산하는 것으로 구성됐고, 다시 정릉입구에 와 일행이 뒷풀이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에 오르는 이유를 힘들게 오른 후 시원한 막걸리

한잔이라고 꼽는 사람이 많을 만큼 음식들도 산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일행은 뜨끈한 두부전골과 손두부김치 등을 놓고 새해덕담을 나누며 소주 한잔을 기울이면서 즐거움을 만끽했다.

그러나 특히 잊지 못할 맛으로 하나 기억되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마가목주이다.

이날 점심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30여명이나 되는 이들이 느긋하게 앉아 밥을 먹을 만한 공간을 찾지 못해 ‘조금 더 가보자’, ‘조금만 더’ 하면서 1시를 넘겨가며 찾

은 곳이 작은 오솔길이었다. 오솔길에 길게 마주 앉아 먹는 점심에서 배가 많이 고팠던 이들은 허겁지겁 맛나게도 먹었다. 이때 일행 중 하나가 가져온 마가목주의 향은 씹쌀하고도 매혹적인 것이 추위도 잊게 했다. 때문에 늘 부족했던 막걸리는 뒤로 밀리고 여기저기서 ‘마가목주’를 한잔 달라고 했다.

마가목 열매는 달여서 먹으면 기침, 인후염 목이 쉰데 등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마가목 열매를 구하기 어려우면 마가목 잔가지를 달여 먹어도 좋아 마가목주를 열매로 담기도 하고 가지로 담기도 한다. 마가목 잔가지는 산속에 사는 스님들이 차대신

즐거 달여 마시는데 특이한 향과 함께 약간 매운듯한 맛도 느낄 수 있다. 특히 마가목주는 강장효과가 있어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술이다.

이런 마가목주 한잔에 힘들기만 했던 산행의 피로가 풀렸다면 거짓말일 것이고 한 70% 이상 풀렸다고

는 장담한다. 마가목주의 향에, 또 사람들의 향에, 통일의 향에 취했다고 할까?

미리 산행기를 써야 할 줄 알았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 산에 오르면서 감흥 등을 글로 옮겨 놓았을 텐데 사실 이번 산행에서 그런 작업이



전혀 없어 산행기가 많이 부실함이 부끄럽다.

누군가의 부탁에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에 이렇게 아무 내용 없는 산행기를 맡게 됐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더 많이 부끄러운 꼴만 내보이게 됐다. 휴~

다만, 끝까지 함께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힘든 산행이라 하면서도 매번 또 다른 산행을 계획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 가능했다고 이야기 하고 싶다. 힘든 순간,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때 ‘6.15산악회’에 오면 누구보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아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름답다
우리

6.15한마음통일산악회 3월 산행

남녘에 이른 꽃이 피었습니다. 정세는 꿈꿨지만 겨우내 얼었던 우리 마음 녹아내려 산으로 갑시다.

좋은 벗들과 함께 하니 더없이 즐거운 산행이 될 것입니다.

- 일 시 : 2009년 2월 22일(일) 오전 9시
- 모이는곳 : 3호선 연신내역
- 준 비 물 : 간단한도시락 회비 3000원
- 산행연락 담당 : 송지영 011-9886-1720

장민호 님의 편지

공권력-공공의 적

2009년 1월 20일 공권력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된 용산철거민
열사들의 명복을 빌며....

2009년 1월 20일 새벽 7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어느 건물 옥상 위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다섯 명의 철거민
공무원 한 명이
무참히 죽어간다.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소신껏
살인을 명령한 자,
명령에 복종하여
자신의 공적 직무를 다하여
살인을 수행한 자들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정당한 법 집행으로
무죄하고
의연하고, 바로 그
공공의 안전을 위한
공무 집행 중, 위태롭게
쫓기고 내몰린 자
숫구치는 불길 속에서
매맞고 불에 탄 자들
싸우다 산화된
열사들은 말이 없고
산자들은 울거나
울부짖거나
공안사범이 되어
체포되었거나
수배자 되어 곧
체포될 것이다.

옛날의 어느 시인이 이르기를
“이 세상 어느 법을 어긴 죄,

惡法을 만든 죄만 하며,
어느 은행강도의 죄,
은행을 만든 죄를
따르겠는가?”

하물며 인간의 탈을 쓴 그 누가
살아가기 위하여 단지
소중한 가족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화염병 던진 죄를
소중한 사람의 목숨, 삶들을
통째로 앗아간 죄,
살인을 명령한 죄에
감히 건주겠는가?

공공의 안전의 이름으로
공무를 참칭하며
민중의 소중한 목숨, 삶들을
통째로 앗아간 자. 그 이름
「공권력」!

민중의 이름으로 민중을 위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너의 공무를 명하노니,
늦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고해하라!
네가 들먹이는 「공공의 안전」
네가 참칭하는 「公共의 직무」
그들의 진짜 목적은
바로 다름아닌
「살인」! 그것도
「공모살인」
땅부자, 건설업자, 용역깡패들

그리고 정치모라배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민중의 소중한 생명을,
그 생명들을 지키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싸울 자유와 권리들에 대한
압살과 착취를 공모한
「공공의살인」이었음을
자백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빠속 깊이 회개하고
행동으로 입증하라!
오직 땅부자와 매국노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
너희들만의 「공공」

착취와 억압과 폭력
의 안전이 아니라
민중을 위한 민중의 공공,
사람의 목숨과
만인의 안전을 위하여
저 살인자들!
살인을 공모하고 명령한 자들을
당장 체포하라!

만일 네가 거절한다면
지금 당장
가신 열사들의 영전에
두 무릎 꿇고
고해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응당 살인자들을 향할
공권력의 칼끝을 의연히
민중에게 겨룬다면

「공권력」!
너는 이미 죽었다.
인간의 영혼이 떠나버린
산 주검! 너는 이미
사망하였다.

옛날 어느 철학자가 이르기를,
“원숭이가 추한 것은 그가
인간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감히 인간을 흉내내어
인민의 권력의 허울을 쓰고
인민을 살해한 너는

추한 원숭이 해골만 남긴 채
이미 사망하였다.

우리가 외치기도 전에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결의에 찬 목소리로
“공권력이여! 너는 이제
공공의 적
민중의 적이 되어
너의 조종이 올리는 그 날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다”라고
외치기도 전에
너는 이미 사망하였다.
매국을 위한 매국에 의한
매국노들만의 법
독재를 위한 독재에 의한
독재자만의 질서, 그리하여
민중의 마음속에서
민중의 마음을 잃고
죽은 줄도 모르고
구천을 떠도는
「공권력」! 너는
흉측한 해골만 남긴 채
너는 이미 죽어버린 것이다.

죽어버린 네 무덤 위에서
칠천만 겨레의 부릅뜬 눈동자로
너의 명백한 사망을 확인하며
우리는 계속 외칠 것이다

네가 거듭 태어나
원숭이의 해골을 벗고
인간으로 거듭 나
이 땅의 주인, 민중의

공복으로 거둬나
만인의 생명과
민족의 안전을 위하여

민족의 자주와
민주주의
하나된 조국을 위하여
충직히 공무를 집행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다.

* 모든 분들의 건투와 건승을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2009년 1월 29일 대전교도소에서 장민호 드림



박종기 님의 편지

전국의 모든 양심수동지 여러분

오늘 하루도 끓어오르는 의분과 변민비탄으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습니까?

일찌기 진보의 순수양심으로 살다 요절한 혁명시인 김남주는 “의인이 갈 곳은 감옥 밖에 없다”고 言明하였는데 투쟁이 선이다라는 뜻 외에 ‘감옥에 있는 사람만이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이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야만과 금수가 판치도록 몰아가는 자본주의에 일격을 가하고 적잖은 균열을 낸 댓가로 수많은 노동자 농민 빈민들에 지금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쓰라린 아픔을 홀로 삼키며 피눈물을 남몰래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승을 능가하는 고행과 인간의 기본적 본능마저 박탈당한 채 짐승보다 못한 처참한 생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세상그 어느 곳에 이보다 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 사회는 양심수에게 별다른 연대의 행동은커녕 메시지조차 보내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옥살이 고통보다 백배 힘들고 아프게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름모를 고독 소외만큼 무서운 것도 없나봅니다.

흉악한 강도들도 인의예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업에 임할 땐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을 만나면 물불 안가리고 돌봐줍니다. 가히 희생과 자비의 경지입니다.

물론 차원을 달리해야겠지만 진보를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만이라도 헌신은 아니라도 연대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지점입니다. 나너 할것없이 연대의식이 높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죠. 연대는 남을 위하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라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다 줄수있는 것은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자신도 행복하기에 다 쏟아 부을수 있는 거죠.

연대도 실천할수록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만큼 뿌듯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노동자 실업자 비정규직 빈민 할 것 없이 동고동락하는 마음으로 함께 연대하고 남북간에도 서로 의지하고 연대해서 통일을 앞당기고 노동해방세상이 빨리 오기를 간구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통일과 평등세상을 그리며 옮겨왔습니다. 우리 모두 크게는 아니더라도 작은 실천이라도 아니면 마음만으로도 큰 연대를 품어봤으면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대만이 함께 살 길입니다.

-심한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느 날 네팔 땅의산길을 두 사람이 걷고 있었다. 추위가 살을 에이는데 인 적도 없는 외딴 험로가 계속 되었다. 얼마쯤 가다 눈 위에 쓰러져 신음하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한 사람이 “우리 이 노인을 함께 데리고 가자. 그냥 두면 얼어죽고 말 것이다” 그러자 다른 동행인은 화를 냈다 “무슨 소리냐 우리도 죽을지 모르는 판에 저런 노인네까지 끌고 가서 함께 죽고 말 것이다” 사실이 그럴지도 모르나 한 사람은 노인을 방치할수 없었다. 노인을 들쳐업고 눈보라 속을 걷기 시작했다. 다른 동행은 앞서 가버려 보이지도 않는데 갈수록 힘이 들어건디기 어려웠다. 몸에서는 땀이비오듯 흘렀다.

몸에서 이런더운 기운이 끼쳐서인지 엷힌노인은 차츰 생기를 회복하고있었다. 두 사람은 체온탓에 추운 줄 몰랐다. 마침내 마을에 이르렀을 때 입구에 한 사내가 언 채로 쓰러져 죽어있는 것을보았다.

그는시체를 보고 깜짝놀랐다. 바로 혼자만 살겠다고 먼저가버린 그 동행자였기 때문이다.

-연대는 뜻이 아주 깊은 것 같습니다. 운명을 함께 하는 동지애의 사회적 확장이고 범민족적 동포애가 아닐까요. 세계의 민중과 연대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정도는 한 번 해볼만하지 않을까요.

경기의 불황으로 민중의 고통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혼자만 살아남으려 말고 함께 사는 길을 찾을 때 나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생각이 어렵지만 마음한 번 고쳐먹으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남북간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남북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지않습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남북이 공생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노동자가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역류되행하면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노동자가 앞장서서 통일에도주역이 되고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냅시다.

-전국의 훌륭한 양심수동지 여러분! 나는 이제 만기를 얼마남겨놓지 않고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옥살이가비록 힘이 들고 세상에 대한 비애가 무시로 옥죄어 오더라도 누구도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의인으로서의 높은 자부와 존엄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끝까지 형기를 잘 마치기를 빕니다. <건강만이 살길입니다>. 강녕!

그리고 양심수후원회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멋진 연대를 꽃피워주셨습니다. 많은 양심수들이 결코 잊지 않고 같은 길을 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하며 가내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9년 2월 1일 전주에서 박종기 배상

최용근 님의 편지

대한민국이 앓고 있다.

대한민국이 병이났다
학생들은 잘못된 교육으로 신열이 끓고
노동자들은 거리에 내쫓겨 눈물흘리고 있다.
언론은 검은 띠 두르며 조의를 표하며
국회는 악법 제조기로 변한지 오래라
사법부는독립은커녕 부패의 온상이 된지가 오래고
망루에 내몰린 철거민들은 공개화형식을 거행하였다.
진실을 유포한 미네르바부엉이는 철창에 갇혀버렸고

촛불시위자 주검을 목격한 이도 진실유포죄로 감옥에 있다.
SRM 전수조사는 거부한 채 출처를 알 수 없는 쇠고기가
우리의 밥상을 불안하게 한다
부자에게는 감세를 서민들에게는 복지예산마저 삭감하며 고통은 분담하라고 다그친다.
저 지하병커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박탈하는 거대한 음모가 꾸며지고 4대강 살리기로 포장된 국토의 훼손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누구하나 함부로 나서는 이 없고 누구하나 진실을 말할 권리는 이미 차단당하였다.
녹슨 공안의 칼은 남북을 단절시켜버렸고 이산의 눈물은 끝내 땅자의 뉘를 기린다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사람들아
이땅과 이 나라는 후손에게 물려줄 거룩한 삶의 터전이건만 찢어지고 무너지고
온갖비리로 오염시키고 그곳에 누가 살려고 그러는가
오직 일부의 특권층을 위해 대한민국이 눈물흘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다
김구는 테러리스트요 4.19는 데모 역사는 거꾸로 흐른다
상해임시정부는 무시되고 독재자들의 동상이 별뿔뿔씩 일어난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가고 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깨어나라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최후의 양심의 보루들이여!
우라는 지금 너무 먼 곳까지 왔다.
더 이상은 더 이상은 결코 안된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지금 흘리는 눈물이 걸잡을 수 없는 피바다가 될 것이 뻔한데
아 저들은 막장을 향해 너무나 느림하게 전진하는구나
그 끝은 지옥이요 저들의 무덤이 될 것이 확실한데
살기위해 발버둥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통제하려하고
민초들의 입막기에 급급해 목숨조차 가볍게 여기는구나
미군의 훈련장과 미군기지는 조상대대로 지켜온 삶의 터전을
가치없이 빼앗았고 이제는 그들이 이전비용마저 국민의 세금으로 떠맡으려 한다.
경제는 침몰하여 수면아래로 곤두박질 하는데
언제가는 되살아날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좌편향이라고 하면서 좌는 물론이요 중양마저 사라졌다.
추락하는 대한민국이여!
침몰하는 나의 조국 한반도여!
지금 어디로 향하는가 대답 좀 해다오
이 나라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해 이제까지 흘린 피
정녕 그것도 모자랐단 말인가.
언론은 무엇을 하는가
방송은 무엇을 하는가

대학강단에 있어야 할 교수가 사법부의 부패를 알리기 위해 석공을 들고 시위를 했다고 감옥에 있다.
 남북화해와 민족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쳐 활동한 사람들은 6.15 104를 개무시하고 간첩이라는 붉은 색을 입혀 감옥에 가두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제아무리 독하고 독한 독재 정권하에서도 이런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그리고 새로운 계급사회로의 회기가 도래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1~2프로의 특권층과 98~99 프로의 사회 추락한 서민들의 극소소의 기득권을 위해 희생되어야만 하는
 가장 못난 복지 제로의 사회를 향해 달려간다
 너희들은 누구냐
 스스로 보수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가까운 일본을 봐도 제나라 국민을 희생시키는
 너희같은 보수는 눈씻고 찾아봐도 결코 없다네
 너희들이 누구냐
 대한민국을 깡그리 말아먹고 국제사회에 치욕의
 신기록을 수립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나
 같은 민족이고 같은 시민이고 같은 국민이라면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할 걸세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불행한 민족
 수많은 반민족 친일파 후손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나아가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부활하여 역사마저 왜곡하고 있다네
 아어쩌란 말이나
 이대로 지켜보고 있자니 그토록 독제에 항거하며 지키려했던 수많은 열사들을
 희생의 영령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자책감에 몸서리쳐진다.
 일어나야 한다
 싸워야 한다
 그리고 끝내는 이겨야 한다
 이방인과 다름없는 저들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긴 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대로 물러나서 국민의 정서마저 짓밟는
 저들에게 굴욕당하기에는 이제까지 흘린 피와
 눈물이 너무 넘쳐흐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멈추지 못하고 더 이상 방치하여 돌이킬 수 없다면
 결국 말기현상이 곧 나타날 것이고 심층적이며 구조적인 몰락을 가져올 것이며
 그로 인한 공멸은 대한민국을 잃고 긴 어둠 속 이비규환으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억측이라고 주장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끝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위정자들이여! 또한 권력과 언론을 통제하는 이들이여!
 그대들이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우성치는 시민들의 원성에 귀 기울이고
 이제부터라도 선정을 베푸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그리고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직시하시라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여!

2009년 2.12일 서울구치소에서 최용근 드림

애국빨치산투쟁가이시며 통일운동가 서순정선생님 별세



4년간의 강고한 빨치산 활동으로 20년 옥고를 치르고 출소하신 출소장기수 서순정 선생님께서 오랜 감옥살이의 휴유증과 간질환을 앓아오시다 2009년 2월 15일 7시 30분 운명하셨습니다. 양심수후원회와 통일광장은 입원해계셨던 보라매 병원 장례식장에서 간단하 추도하는 모임 가졌습니다. 김영승선생님의 사회로 고인에 대한 묵념드리고 김호현 양심수후원회부회장의 선생님의 살아오신 길 소개에 이어 통일광장 대표 임방규선생님께서 동지에게 드리는 추도사와 권오헌회장님의 선생님을 회상하며 드리는 말씀과 남도 빨치산 동지였던 정관호선생님께서 추모의 글을 바쳤습니다. 아드님이신 서 님이 감사인사말씀이 있었으며 다시 애도의 묵념드리고 함께 하신 선생님들과 선생님 영전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순정선생님 살아오신 길〉

- | | | |
|---|---|---|
| -1981년 1월24일 전남 순천시 승주군 송강면 후곡리에서 출생 | -국전쟁발발 전까지 도피생활을 하심 | -이후 무기로 감형되었다가 다시 20년으로 감형 |
| -1938년 여수에서 국민학교 입학 | -1951년 여수 군당비서로 있던 박일봉 선생 밑에서 사무관으로 종사 | -대구에서 대전형무소 광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심 |
| -졸업 후 공립고등학교에서 2년간 수료 후 졸업 | -미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9.28후퇴명령이 내려지자 고향 모후산으로 입산 | -1974년 4월 20일 출소 |
| -1945년 해방이 되어 동경유학생들이 귀국하여 열었던 아학에서 맑스 레닌의 세계관에 접함 | -모후산 950고지에서 빨치산투쟁 시작. | -출소후 과일장사 복덕방 등을 하며 생계 유지 |
| -해방공간에서 자주통일 단독정부수립 반대운동을 하심 | -도당학교와 군당학교에서 교육받음과 동시에 조계산 호랑이로 불리우며 투쟁일선에서 활약 | -김선옥님 만나서 결혼. 김선옥님의 든든하고 알뜰한 내조 속에 슬하에 제 자녀를 두고 홀 통히 키워내심 |
| -이승만 단정수립반대운동과 동시에 여순항쟁의 군인봉기에 같이 하여 현장에서 환영대회 보호대회에 참석 | -1954년 3월 정전협정 후 대대적인 빨치산 토벌 작전에서 동지16 명과 함께 생포 | -2001년 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2차송환을 희망하심 |
| -여수순천이 20년대에 의해 장악된 후 여수를 빠져나와 돌산 아래 섬에서 한 | -1954년 4월 25일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 | -2009년 새해들어 보라매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
| | -1954년 4월 27일 대구형무소에 수감 | -2009년 2월 15일 오전 7시 운명하심 |

님을 보내는 글

서순정 동지여

오랜 동안 병마에 시달리더니 끝내 돌아가셨구려

동지를 알고 존경하던 우리들 권오현 회장을 비롯하여

여러 동지들 함께 영전에 절을 올립니다.

전날 유운형 선생의 부음을 듣고 우리 모두 비탄에 잠겼었는데

오는 또 동지를 떠나보내게 되어 우리는 어찌 할 바를 모르겠구려.

이렇게 하나둘 씩 설피어가는 옆자리를 무엇으로 메우란 말입니까.

어려운 때 일신의 안일보다 조국의 운명을 더 걱정하시어 정의의 투쟁 대열 선봉에 서셨던

동지의 활동상을 우리 모두 잘 알고 또 그 헌신에 감사합니다.

그 모진 추위와 굶주림도 거뜰히 이기시어 조계산 호랑이로 용명을 떨쳤건만

모진 옥살이에서 얻은 병마가 동지를 기어이 우리 곁에서 앓아가는구려.

부인을 비롯한 유자녀들의 설움인들 오죽하겠소이까.

세월은 더 어렵고 고단해집니다.

반통일과 불의의 악법이 판을 치는 속에 바르게 살고 조국 하나되기를 위해 싸우는

저희들 곁에서 동지가 떠난다는 것은 커다란 상실이요 슬픔입니다.

이 영이별의 제단 앞에 엮드린 우리 모두가 바치는 흠모의 정 받으시어

원통히 스러지는 피눈물을 거두시고 영겁의 평안 속에 고이 잠드소서

귀한 이름 서순정동지여!

존경하는 선배 서순정 선생이시여!

선생은 자기 온 생애를 바쳐 이 거래의 아들답게 잘 살고 잘 일했습니다.

부디 통일된 조국이 선생의 이름을 현양할 때까지 만 가지 시름 거두시고 평안히 쉬시오.

부인과 유자녀들에게 삼가 위로의 말씀 전하며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좇불켜고 향 사르며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2009년 2월 16일

추도 모임에 참석한 이들을 대신해서
정관호 드림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9년 2월 15일 현재 총 88명 | 민가협/구노회 조사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 명	구속날짜	적용 법규	형 량	만기일	수감지	가미결
강진구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08.09.27	국보			서울구 15	미결
고희철	노동자	동우화인컴 비정규직분회	부당해고 철회농성	09.01.15	공방			평택구 213	미결
곽동기	재야	한국민권연구소	실천연대 사건	08.09.27	국보			영등포구 3402	미결
권영기	노동자	건설기계(총 북)	온비인상등 근로환경개선투쟁	08.09.04	방화	1년	항소중	충주구 223	미결
권해진	재야	홍시단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11.06	집시			서울구 186	미결
길준영	노동자	금속노조 대전충북ASA	부당해고 철회농성						미결
김규환	노동자	용산신계동 철대위	용산4구역철거반대 투쟁	2009.1.2				서울20	미결
김동완	노동자	인터넷카페 열혈 국민							미결
김명호	교수	민교협	이른바 석공사건	2007.1		4년		의정부	기결
김승현		용산구 정금마을철대위	용산4구역철거반대 투쟁	2007.1.2				서울구 161	미결
김순진	노동자	현대미포조선 노조	미포조선용인기압원격복지투쟁	2009.2.9				울산중부결찰서	미결
김승철	노동자	인터넷카페 열혈 국민	촛불항쟁(명동성당투석전)	2008.8.1				서울구 1561	미결
김용오	노동자	금속노조 대전충북ASA	부당해고 철회농성	2009.2.2				대전724	미결
김철규	노동자	노동해방철거민연대	의정부행정신동철거반대투쟁	2008.1.1				의정부 103	미결
김경수	노동자	건설기계(인천)	08년 6월 건설기계 총파업	08.12.08	폭력			인천구 2439	미결
김근주	노동자	건설기계(경남)	08년 6월 건설기계총파업	08.11.11	집시, 폭력업방			진주교 253	미결
김기완	재야	한국진보연대	수사정 보열람	08.10.07	정통망법	10월	항소중	서울구 195	미결
김대원	재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09.01.23	특공화염병			서울구 187	미결
김동규	재야	한국진보연대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11.06	집시			서울구 155	미결
김복기	재야	청학연대	이적표현물 사건	08.09.27	국보			서울구 179	미결
김석민	재야	개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8.11.17	병역법	1년6월	항소중	서울구 1289	기결
김상일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08.09.27	국보			수원구 302	미결
김성철	재야	전철연(정금)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09.01.23	특공화염병			서울구 161	기결
김수익	노동자	기아차 화성(사내하청)	07년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09.01.06	업방			수원구 335	미결
김승철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08.10.02	집시	1년6월	항소중	안양교 2638	기결
김재진	노동자	민주노동당(전남)	광양항노동조합 설립 관련	08.04.04	특공업방	1년6월	항소중	순천교	기결
김재호	재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09.01.23	특공화염병			서울구 171	미결
김중구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07.10.16	집시, 폭력	1년6월	2009/04	안동교 844	미결
김준근	노동자	건설기계(인천)	08년 6월 건설기계 총파업	08.12.08	폭력			인천구 1306	미결
김종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순천)	확약서 이행 촉구	08.05.10	특공	1년6월	항소중	광주교 3322	기결
김주환	재야	전철연(용산신계)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09.01.23	특공화염병			서울구 20	기결
김OO	재야	개인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08.28	특공			서울구 89	기결
남인관	노동자	건설기계(인천)	08년 6월 건설기계 총파업	08.12.08	폭력			인천구 2247	미결
문경환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08.09.27	국보			성동구 59	미결
박경식	재야	개인	일심회	07.02.01	국보	3년6월	2010/08	광주교 5051	미결
박원석	재야	참여연대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11.06	집시			서울구 115	미결
박정태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07.11.08	업방특공	1년6월	상고중	충주구 460	기결
박종기	재야	민주노동당	북한방문	06.10.23	국보	2년 6월	2009/03	전주교 2500	기결
박창도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6월 총파업(08년)	08.11.07	업방	6월		김천교 215	미결
박OO	재야	개인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포	09.01.09	전기통신기본법			서울구 1862	미결
백성규	재야	미친소닷컴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08.11.06	집시			서울구 147	미결
손정목	재야	개인	일심회	06.10.24	국보	4년	2010/10	대구교 45	기결
송원재	노동자	전교조(서울)	08년 서울교육감선거자금징수	08.12.31	정치자금법			서울구 197	미결
신성원	노동자	기아차 화성(사내하청)	이젠택 연대 투쟁(07년)	08.10.12	업방			평택구 203	미결
안홍열	학생	대학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8.06.23	병역법	1년6월	2010/02	청송제2교 1144	미결

이름	분류	소속	사건 명	구속 날짜	적용 법규	형 량	만기일	수감지	기미결
양태조	노동자	민주노총	한미FTA 반대(07년) 등	08.01.07	집시특공	2년	2010/01	여주교 270	기결
여우성	노동자	전해투	복직촉구 집회관련	08.05.14	업방, 명예훼손	1년	2009/05	서울구 1227	미결
오승록	군인	개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7.12.04	병역법	1년6월	2009/06	여주교 809	기결
윤기진	재야	범청학련	범청학련, 한총련 불탈퇴 (7기)	08.02.28	국보	3년	항소중	서울구 96	미결
이영도	재야	민주노총울산본부	미포조선인기입원직복직투쟁	20.09.2.9				울산중 부결 참서	미결
이길준	군인	의경	촛불집회진압 양심선언	08.08.07	명령불복종	2년	상고중	안양교 2656	기결
이동우	노동자	기아차 화성(사내하청)	임단협 (07년 8월)	08.11.02	업방			수원구 334	미결
이라즈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경제단속단(민명소송)	05.06.27				화성보호소	기결
이석행	노동자	민주노총	광우병식고기반대 총파업	08.12.05	집시,업방			서울구 27	미결
이성수	노동자	민주노총(전남)	08년 드림메이커연대투쟁 (07년)	08.12.17	특공			순천교 270	기결
이용대	노동자	건설노조(총북)	단체협약 이행촉구	08.02.15	집시,폭력	10월+6월	2009/06	광주교 3340	기결
이윤재	노동자	전교조(서울)	08년서울시교육감선거 자금조성	08.12.24	정치자금법			서울구 109	미결
이정수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07.12.24	집시,폭력	1년6월	2009/06	청주교 1225	기결
이정훈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06.10.24	국보	3년	2009/10	전주교 2510	기결
이진강	재야	개인	일심회	06.10.26	국보	3년	2009/10	안동교 3010	기결
이충연	재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09.01.28	특공			서울구 29	미결
이희만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또노조 농성)	06.07.13	업방,폭력	1년+1년6월	2010/03	대구교 1154	기결
임삼민	노동자	부산지법 노조	수시정 보열람	08.08.28	정통방법	1년	항소중	서울구 111	미결
장욱기	재야	민주노총전남본부장	광양항노동조합설립 관련	20.08.3.5				목포10	기결
장민호	재야	개인	일심회	06.10.24	국보	7년	2013/10	대전교 4009	기결
전수민	노동자	인터넷카메라 열혈 국민	촛불항쟁(명동성당투사전)	20.08.8.1				서울구 62	미결
전정구	노동자	금속노조 대전충북ASA	부당해고 철회 농성	20.09.2.2				대전교 1831	기결
전OO	재야	개인	광우병식고기반대 촛불집회	08.09.11	특공			서울구 62	미결
정영철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연대활동	07.10.31	업방,특공	1년6월	상고중	충주교 461	미결
정영철	재야	개인	찬양고무 사건	08.12.05	국보			서울구 153	미결
정청수	재야	개인	07년 한미FTA 문서공개	08.12.19	공무상 비밀누설	9월	항소중	서울구 3750	미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3년+6월+6월	2009/06	안동교 15	기결
정창화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연대활동	07.11.19	업방,특공	1년6월	상고중	충주교 456	미결
조민환	재야	전철연(성남단대)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09.01.23	특공, 화염병			서울구 145	미결
조순동	노동자	화물연대(대전)	망향휴게소 노조연대활동	07.10.22	업방,특공	1년6월	2010/02	순천교 1280	기결
천춘배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6월 총파업 (08년)	08.10.21	폭력	8월+10월	2010/04	부산구 6038	미결
최성훈	노동자	인터넷카메라 열혈 국민	촛불항쟁(명동성당투사전)	20.08.8.1				서울구 50	미결
최기영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06.10.26	국보	3년6월	2010/03	대전교 4003	기결
최용근	노동자	일간지 지국장	광우병식고기반대 촛불집회	08.06.06	전기통신기본법			서울구 1561	미결
최한욱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08.09.27	국보			서울구 76	미결
최현기	노동자	동우화인컴 비정규직분회	부당해고 철회 농성	09.01.15	공방			평택구 214	미결
최OO	재야	개인	광우병식고기반대 촛불집회	08.08.28	특공			서울구 50	미결
한기남	노동자	건설기계(인천)	08년 6월 건설기계 총파업	08.12.08	폭력			인천구 1440	미결
한성기	노동자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노조	08년 드림메이커연대투쟁 (07년)	08.11.20	업방	6월	항소중	광주교 3350	기결
한용진	재야	한국전보연대	광우병식고기반대 촛불집회	08.11.06	집시			서울구 141	미결
허연	재야	한국전보연대(광주전남)	범 국민대회 (11/11) 관련	07.11.21	집시,특공	1년6월	2009/05	장흥교 88	기결
황창훈	노동자	학습지노조(대능교육)	노조인정 임금삭감반대농성투쟁	08.11.09	폭력			서울구 3191	미결

01 -----
 ● 2009년 새해는 보신각 앞에서 MB이두 촛불집회로 맞았습
 니다.

● 새해를 맞아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문상봉 박희성 김영식
 안희숙선생님과 함께 떡국을 끓여먹으며 새해 덕담을 나누
 었습니다. 또한 제주도 고성화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
 전화로 새해인사를 드렸습니다. 권오현 임미영 함께 했습
 니다.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7년 새해를 맞아 '나
 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란 제목을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
 위>공동사설을 발표했다고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공동
 사설은 '지난해 주체사상.선군기지 높이 위대한 역사를 창
 조해 온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이 만천하에 떨쳤음'을
 강조하며 2008년 인민경제부문.문화예술부문 등을 열거하
 며 '우리당이 이끄는 선군의 길이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
 의 번영을 위한 참다운 사회주의 길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는 힘찬 진군은 그 무엇으로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지난해 투쟁의 긍지높은 총화이다'라고 하다. 공동사설은
 이어 '새해 주체98(2009)년은 당의 부름에 따라 전인민적
 인 총공세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역사적인 비약
 을 이룩해야 할 혁명의 대고조의 해'라며 '전당. 전군. 전민
 이 우리의 사상. 우리의 투쟁방식에 의거하고 우리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우수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21세기의 새로
 운 대고조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한다'고 하다. 또한 정치
 사상공세 인민경제부문 선군위력 강화 등에 이어 특히 통일
 위업에 대해 '조국통일은 겨레의한결같은 지향이며 민족지
 상의 절박한 과업'이라며 '올해의 6.15공동선언과 10.4선
 언의 기치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 밑에 조국통일운동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한다'고 하
 다. 끝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
 인 대외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우리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 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위업
 실현에 적극 이바지 해나갈 것'이라며 '혁명의 수뇌부두리
 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조국의 강성번영과 주체혁명의 위업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하다.

●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민통선동네에서 농사를 지으신 이재
 훈회원님이 행쌀80킬로그램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쌀을 가
 까이 계신 장기수선생님들(안희숙 박종린 신현칠선생님)께
 나누어드렸습니다. (후원회소식207호보심)

● 이스라엘은 새해 첫날인 이날도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벌여 10여명의 사망자를 내고 이로써 지난날 27일 이스라

엘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팔레
 스타인인 수는 402명으로 늘어났고, 부상자는 2천98명이
 라고 가자지구 의 응급구조대 측은 AFP 통신에 전하다. 이
 스라엘군은 대규모 지상군을 동시에 투입해 단기간에 하마
 스 세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부작전을 일선
 지휘관들에게 하달했다고 일간 하레츠가 전했다.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는 전날 밤 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전쟁의 중단을
 강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이사
 국 간의 견해차이로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02 -----
 ● 국회정론관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민주당 김낙성.유선호,
 창조한국당 문국현 등 비상사국회의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
 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의 졸속처리반대와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
 FTA비준안)은 미국발 경제위기에 따른 산업별영향평가와
 피해대책마련 등 재검증절차를 18대 국회 전상임위별로 철
 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국회비준은 대외여건을 보
 며 진행시켜도 결코 늦지않다"고 못박았다.

● 임채진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위기 운운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이 곧 경제난 타개의 가
 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억지소리를 늘어놓다. 그리고 노사분
 규와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불법팔벌의 원칙을 강조하여 공
 안정국을 예고하다. 지난날 29일 김영한 법무부 장관은 ▲
 안보침해사범 엄단 및 공안 조직 보장 ▲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 등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어 공안정국조정으로 민중
 탄압의 칼을 휘두르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하다.

● 안희숙선생님과 박종린선생님 찾아 뵙고 이재훈회원이 보
 내온 쌀 나눠드립니다.송지영 모성용함께 하다.

03 -----
 ● 이스라엘군이 개전 8일째를 맞아 탱크부대 등 대규모 지상
 군 병력을 가자지구로 투입, 전면적인 지상작전에 돌입했다.
 이스라엘 지상군은 이날 저녁 공격용 헬기의 호위를 받으면
 서 접경선을 넘어 가자지구로 진격해 들어갔고, 하마스는
 박격포를 발사하며 반격에 나서는등 양측간에 치열한 전투
 가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전 개시 전에 단행한
 대공습에 가자지구 북부의 한 모스크가 파괴되면서 그 안에
 서 예배를 보던 팔레스타인인 1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
 상했다고 전해지다.

● 한나라당의 MB악법 기습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당 민주노동당의원들과 보
 좌관 당직자들을 국회경위와 방호원 200여명이 네차례에
 걸쳐 강제 폭력해산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안경이 깨지고 골절 등 부상을 당하다. 밖으로 끌려나온 보좌관 당직자들은 다시 농성장으로 들어가고 공방이 이어졌고 양당 농성자들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 어청수경찰청장을 규탄하며 국회의장과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의 국회의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다.

국회강제해산에 항의 국회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연 시민 등 3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강제연행되다. 누리꾼 등 200여명이 '의회쿠테타 규탄 촛불문화제'를 여는 과정에서 시민 1명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를 항의하는 누리꾼 3명이 다시 연행되자 자정을 지나 새벽 4시 20분 경 60여명이 영등포 경찰서로 항의방문을 했으나 경찰은 미신고집회라며 다시 29명을 체포하다. 이들은 금천경찰서에 9명 구로서에 10명 강서서에 10명씩 이송되어 조사받고 있음

파주에 사시는 출소장기수 신현철선생님 찾아 뵙고 이재훈 회원이 보내온 쌀 나눠드리다. 오후에는 안재구선생님 사모님 문상 다녀오다 김재선 권오현 모성용 함께 하다.(207호 기사보심)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다. 박재군 비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진관스님(불교인민위원회 공동대표) 등은 발언을 통해 '어청수 경찰청장과 경찰의 국회폭력난동을 규탄하다.

국회에서 야당의원 강제해산하는 불법만행과 관련 언론사 유향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 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장악 악법" 강행 이명박대통령, 김형오 국회의장, 한나라당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기자회견에는 정범구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범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이사장, 정연우.정연구.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심석태 <SBS> 노조위원장,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누리꾼 등 60여명이 참가하다.

여의도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신문법. 방송법 개악 반민생민주 MB악법저지 48시간 국민행동' '주최로' '막가파식 MB독재심판기자회견'을 열고 6일부터 8일까지 2차 48시간 비상국민행동에 들어감을 선포하다.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여는 말과 어병운 민주노동당사무총장의 국회폭력상황보고 진영옥 민주노동 수석부위원장 등 규탄발언과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여의도 국회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인권단체 연석회의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수호, 촛불 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은 의회쿠테타를 일으킨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열다. 'MB 독재 심판' 손피켓과 촛불을 든 이날 문화제에는 비상국민행동 소속 회원들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 다음 아고라 회원 등 350여명이 참가하다.

종로구 서린동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와 다함께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산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침공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에 평화와 정의가 깃들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평화를 상징하는 '살라'에 각자의 염원을 적어 팔레스타인 국기 모형에 붙이는 한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다. 이날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항의서한을 전하려는 대표단은 경찰에 의해 건물 로비에서 출입을 제지당하여 전달하지 못하고 1층 로비에 항의서한을 던져놓았다.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준)주최로 '방송법 언론법 개악관련 KBS 보도행태 규탄기자회견'을 열다. 박석운 민언련공동대표 박정모 민주노동총부위원장 이덕우 진보산당공동대표 등 규탄발언과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기자회견문에서는 이명순 씨가 사장으로 들어선 후 KBS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권이 나팔수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KBS는 MB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난해 12월24일 해고된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원청회사 복직 등을 요구하며 굴뚝고공농성에 돌입한 이영도전 민주노동 울산본부 수석 부본부장과 현대미포조선의 김순진 '현장의 소리' 의장은 현대중공업 측의 음식을 전달 차단으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종교·인권단체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음식을 전달을 차단한 것을 '비인도적 행태'로 규정하고,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사회적 행동'을 촉구하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종교·인권단체 대표단은 정몽준 의원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논산에 계신 손경수오영애선생님을 찾아뵙다. 임미영 (207호 소식지보심)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원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4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언론

관계법 철회 등을 촉구하다. 이날 집회에는 9개 지역민영방송사지부 600여명의 조합원들 중 절반 가까이가 연차를 내 참가했으며 청주방송 등 일부 지부는 제작을 중단한 채 사실상 파업을 벌였다. 최상재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 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뒤집으려고 한다"며 "날치기 통과된다면 국민과 함께 정권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최병률판사)심리로 한국진보연대 오종렬상임공동대표의 이른바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공판이 열려 증거 증인 등 채택하다. 증인으로는 황상익 서울대교수와 신광현사회학교수를 변호인 측에서 신청하고 판사는 보석신청전에 대해 보류한다며 야간집회와 관련 위헌제정관련문의를 하다

☞ 한나라당 홍준표원내대표, 민주당 원혜영원내대표, 창조의모임 문국현대표 등 교섭단체 대표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미국 오바마행정부 출범 이후 협의 처리하고 집시법 국정원법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등 10개항의 합의를 발표하다.

☞ 재미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은 재미동포 정영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되는데 대해 '재미동포 인권을 짓밟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다. 정영철 씨가 2005년 11월 26일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에 잠시 내린 것을 '국내에 잠입한 죄'로 조작하고, 평양을 방문한 것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한 죄'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다. 이들은 "만고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이명박 정권의 허수인으로 전락한 국가정보원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다.

☞ 대구시청 앞에서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에 대한 건설노동자 생존대책을 수립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최근 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구지역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현장은 모두 15곳 이 가운데 8산업 건설현장은 회사 측 자금사정으로 인해 임금을 일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주던 것을 45~75일 이후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 현장에서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고, 최근 공사가 중단된 현장도 15곳에 달했다. 지부는 "대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며 재개발구역 허가를 남발하면서 건설사들의 이익창출에 전념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나 불법하도급에 대해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임금체불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 △유보임금과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지도감독 △대량실업 사태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다.

07 -----
☞ 제일 총련기관지 <조선신보>는 평양발에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북측위원회 문영호(67) 위원장의 인터뷰를 싣고 "북과 남의 언어학자들에 의한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이 시작된 지 어느덧 4년 세월이 되었다"고 알렸다. 문영호 위원장은 '겨레말큰사전'에 총 30여만 개의 단어가 수록될 것이며, 2012년 원고 집필 2013년 출판 등의 일정을 밝히고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2005년 2월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가 결성된 이래 지난 4년간 공동편찬사업이 한 번도 중단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최근 '남조선의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 정책에 의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도 중도반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언어학자들은 내외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겨레말큰사전'을 민족의 통일발전에 기여하는 특색 있는 통일사전으로 편찬 완성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제일총련기관지<조선신보>는 이북<조선중앙통신>보도를 인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발표되었다고 이날자로 보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하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 90조에 따라 최고인민의 대의원선거를 주체98(2009)년 3월8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하다.

☞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6.15통일쌀나누기운동'으로 준비한 쌀(40kg) 1천 5백여 가마를 9일 인천항을 통해 북송할 것이라고 밝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6.15통일쌀나누기운동'에 참여하면서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별로 모금을 진행했고, 모금액 1억 4천여만 원으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농민본부(6.15농민본부) 소속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한도숙) 회원들로부터 '통일쌀'을 구입하여 전농이 준비한 '통일쌀' 110여 톤과 함께 9일 오전 인천항을 출발하여 인천-남포 뱃길을 통해 북녘으로 전달되며,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과 조선농업근로자연맹에게 전해진다.

☞ 서울 마포구 이랜드그룹 본사 정문 앞에서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510일 파업투쟁'이 끝나고 홈플러스 소속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돌아갔지만 해고된 이랜드 소속 노동자 7명은 복직되지 못했다"며 "파업투쟁에 함께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복직될 때까지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다.

0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퇴각 및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4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으나 미국은 표결에 기권했다. 결의안은 또 “식량과 연료, 의료 등을 포함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방해받지 않고 공급되고 배분될 것을 촉구한다”면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한 수송 경로 및 다른 조치”들을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환영했다.

용산 국방부 앞에서 평통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한 가운데 한 미군사당국의 <대량살상무기 대항 확산 실무기구>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미군사당국은 이북의 이른바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한 <대확산 실무기구-Counter Proliferation Working Group>를 구성 운영 중이라는 사실이 지난 12월29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이러한 대확산기구는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것으로 이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유영제 평통사 정책실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등이 대북선제공격과 흡수통일을 노리는 대확산실무기구의 즉각해체를 촉구한다.

미 해군은 이북의 미사일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운용 중인 탄도미사일방어(BMD-Ballistic Missile Defense)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18척 가운데 16척을 태평양지역에 집중배치하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미 해군은 미사일공격에 대비 3대의 순양함과 15대의 구축함에 적의 탄도미사일을 추격 요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구비도록 성능을 개선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중 16대가 태평양지역에 2대는 대서양지역에 배치되고 있다고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439명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 희생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힌다. 이어 “순천지역 희생자는 439명으로 확인됐으나,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건 이후 멸족된 사례 등을 고려하면 실제 희생자수는 2천여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반군이 지리산 백운산 등지로 들어가 이른바 ‘구빨치(야산 유격대)’ 활동을 벌이자, 이에 대한 진압과정에서 정부군은 반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순천지역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의 민간인들은 반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국군 제23.4(20)12.15연대 소속 군인과 순천경찰서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됐다. 이어 “여순사건과 관련한 순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 현지 토벌작전 지휘관의 명령 아래 발생했지만, 최종적인 감독 책임은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과 국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유족에 대한 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

권교육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통일부 앞에서 6.15남측위원회와 6.15농민본부, 민주노총 등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촉구 대북쌀지원법제화 촉구 6.15통일쌀 환송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상열 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의 여는 말에 이어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박민용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부의장 윤금순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한다. 50여명의 참가자들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덕운 회장과 카톨릭농민회 배삼태 회장이 공동으로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북미관계의 변화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대북쌀 지원법제화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한다.

09

서울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실천연대활동가 강진구 광동기 문경환 최한옥님의 재판이 열린다.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은 강진구 전집행위원장에 대한 2004.12월 북의 민화협리창덕 사무소장으로 부터 지령을 받기 위해 특수감입 탈출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를 밝힌다. 그러나 강진구 전집행위원장은 6.15통일연대실무자로 심양에 갔었고 리창덕은 공작원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증인신문으로 박해전씨는 실천연대의 결성과정 규약 강령 노선 등에 대해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심양 남북실무회담과 관련 증언을 통해 검찰의 공소내용을 부인한다. 소수영 권오현 방청한다.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민주수호총불탄압저지 비상국민행동 공동으로 ‘정부비판 재갈 물리는 미네르바 체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주가 3000 허위사실 이명박도 구속하라’고 촉구한다. 검찰이 인터넷은객 미네르바로 보이는 누리꾼 박이무개씨를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8일간 급체포된 것과 관련 검찰당국을 강도높게 비판한다. 정대연 국민회의운영위원장 안티이명박카폐운영자아이디 ‘사랑과 평화’ 민변 박주민변호사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 등이 표현의 자유침해 등 검찰의 인터넷 언론탄압을 규탄한다.

후정웨(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외교부 대표단이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한다. 중국 외교부 대표단의 북한 방문은 올해 들어 친북단체인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인사와 조총련 학생소년예술단을 제외하고 해외 대표단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중국 외교부 내 4명의 부장조리 가운데 한 명인 후 부장조리는 아시아지역, 조약법률 담당이다.

10 -----

☞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평통사 범민련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다함께 등 시민사회단체 정당 75개 단체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학살 중단 촉구 긴급행동'을 열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다. 무대 앞 중앙에 팔레스타인기가 덮여 있는 관과 흰 국화를 마련하여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희생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추모의 식과 홍미정 건국대 중동연구소 박사 광정숙 민주노동당의 원 박김영희 진보신당 공동대표, 허영구 민주노동 부위원장, 우석군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등의 연대발언과 이스라엘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알려내기 위해 주최 측이 준비한 '신발 던지기' 상징의식이 있었을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가 낭독한 결의문에서 △이스라엘의 군사공격 중단 및 철수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즉각 중단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학살 중단과 봉쇄 해제 요구 촉구 등을 요구하다.

☞ 이북은 6자회담의 종착점인 핵무기 폐기와 관련, 미국과 국교를 수립해 핵공격을 받을 위험이 사라진 뒤에야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게 될 것이라고 이북의 한 고위관리가 작년 11월 미 싱크탱크 주최 토론회에서 밝혔다. 교도(共同)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북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의 폐기는 6자회담 비핵화 프로세스의 마지막인 3단계 과제로 이 관리는 '북한의 핵계획 신고를 검증하는 문서가 완성돼 협의가 최종단계에 들어가더라도 북미간 국교수립 전에는 스스로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미국측에 못을 박았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12 -----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신년하례식을 갖다. 김규철노중선 지도위원과 김지영 김호현소수영 모성용 안병길 탁무권 김혜순 임미영회원 문상봉 김영식 박희정선생님과 함께 하다. 회장님 인사말과 21차총준위구성, 현시국과 정세현황과 덕담 나누고 떡국 나누어 먹다.

☞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인권침해규탄 결의안에 기권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내어 "외교사에 길이 남을 치욕"이라고 맹비난했다. 논평에서는 "안으로는 민주주의 압살이요, 밖으로는 인권후진국을 자처하는 부끄러운 이명박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 나아가 이명박 정권의 이번 결의서 채택 기권행위가 결국 이스라엘의 무차별한 학살에 동조한 결과로 될 것"이라며 "이번 기권은 이명박 정권이 가지고 있는 반인권적 속성을 국제 외교에서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 33, 반대 1, 기권 13으로 채택된 '점령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군사공격 즉각 중단과 가자지구에서의 군 철수, 1967년부터 계속되어 온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침략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함께 기권한 나라

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카메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등이고 이번 결의안에 반대한 유일한 국가는 케냐다. 결의안에 찬성한 33개 국가는 우리와 이웃한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칠레, 쿠바, 지부티, 이집트, 가봉,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멕시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루과이, 잠비아 등이다.

13 -----

☞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 KT빌딩 앞에서 평통사 범남본 양심수후원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회원 50여 명이 함께 하여 '제112차 반미연대집회'를 열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간인 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폐기 및 8차 방위비 분담협정 서명 중단을 요구하다.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황수영 민주노동 통일위원장 배종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의 발언에 이어 한찬옥 사무국장이 읽은 기자회견문에서는 모든 공중 폭격의 중단과 지상군을 가자지구에서 즉각 철수시킬 것을 이스라엘에 강력히 촉구하다.

☞ 미국방부 <핵무기관리 리뷰태스크 포스>의장 제임스 슬레진제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Report of the Secretary of Defense Task Force On Dod Nuday Weapons Management)에서 '이북이 북수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실어날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북의 핵능력을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다. 이는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 연례보고서(2008.11.25작성~2008 합동작성 평가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는 이미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조선 러시아 등 5개국이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한 것과 미국정보위가 2008.11월에 발표한 '글로벌트렌드 2025'년 라는 보고서, 게이cm 미국방장관이 외교전문지인 포럼어페이스(2009.1.2월분)에서 이북이 이미 여러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기고한 것에 이은 미국의 책임있는 당국자의 공식입장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이북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 핵문제를 풀려면 모든 핵보유국들이 모여 앉아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며 북미간 관계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가 전하다. 담화는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아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된 논리이고 9.19공동성명의 정신에 대한 왜곡"이며 또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은 근원적인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때에 가서는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 남북 지역은 물론 주한미군 기지까지를 통틀어 'corea한도비핵화대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다.

14

● 대구 경북대학교 대강당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정진후)은 조합원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8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의 서막을 알리는 '여는마당'을 개최하고 교사들의 굳은 결의를 확인했다. 전교조 내 32개 분과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의 총 주제는 "교육 공공성을 확립하고 참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날 대회 '여는마당'에는 정진후 위원장,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들, 전직 전교조 지도부들, 진영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김시열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 상임의장 등이 참석하여 결의발언을 하다. 이어 전국의 각 지부 조합원들이 준비한 문예마당이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제8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는 지난 13일 사전마당을 시작으로 각 분과별 발표 및 토론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 각 부문의 현안들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제까지의 '통일교육' 기초를 '통일안보 역사교육'으로 바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다 예로써 이제까지 학생과 교사들이 금강산을 방문해 통일을 주제로 글짓기 포스터그리기 등 행사에서 탈피 '평화전당대' '강화도전적지' 등을 전학하는 '안보교육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며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통일안보자료'를 발간, 초·중·고교에 보급, 교사들의 통일교육 때 활용할 계획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15

● 이북의 <로동신문>은 논설에서 '미국은 조선전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통일뉴스가 인용 보도했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 서 책임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에서 미국이 "그 어떤 구실로써도 조선반도 평화보장 당사자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절대로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설은 북미간 60년간 적대적 관계의 원인이 다름아닌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있다고 적시하면서,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조선전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선결조건의 하나"이자 "조선반도 평화보장을 위해 미국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책임"이라고 주장하다.

● 종로 탑골공원에서 민가협 739회 목요일집회를 열다. 이영 상임의장의 여는 말 권오현 공동의장의 미네르바구속규탄발언이 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사무국장의 안동교도소 정창운 씨 면회와 재소자인권문제 등 발언이 있었음

● 서울도렴동 외교통상부 앞에서 평통사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 대사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서명함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지고 "현대판 대미조공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원천 무효"라며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불법 추적 및 전용 합의를 전면 재협상하라"고 촉구하다. 이날 서명한 특별협정은 서문과 7조로 구성 되었고 2009.~2013년까지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에 지원금으로 7,600억원(2009년 그 후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액을 합산지원키로 하다) 인건비분담은 현금으로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지원으로 하고 연도말에 미집행현물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하다. 또 이들은 이후 방위비분담금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 반대 당론을 채택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함께 국회 청문회, 관련책임자 법적 처벌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다.

● 사월혁명회 도강호(都康鎬) 전 상임대표가 폐암으로 원광대 산본병원에서 향년 75세의 일기로 15일 운명하셨습다. 고인은 1935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났으며, 1960년 4월 혁명 당시 동아대 주역으로 참여하셨습다. 이때 학내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가 제적을 당하기도 하셨습다. 고인은 4월혁명 공간에서 1961년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와 민족통일학생전국연맹(민통련) 활동을 하셨으며, 민통련 활동으로 구금되기도 하셨습다. 고인은 타계할 때까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과 사월혁명회 감사직을 맡아오셨습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박영수 씨에 1남 3녀가 있으며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5호실이며, 영결식은 '통일애국지사 고 도강호 선생 민족통일장'으로 17일(토) 오전 9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을 갖고 마석모란공원열사묘역에 모셔졌습다. 김호현 권오현 문상 다녀왔습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서울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 키슨룸에서 '석공사건 진실규명과 김명호교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김명호교수 구속 2주년 석공사건 조작 진실규명과 혈혼 감정을 촉구하는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다. 이광열집행위원장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김세균서울대교수의 여는 말에 이어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경과 보고가 있었음. 이어 권오현 양심수후원회회장 허영구 민주노동총부 위원장이 호동 민주노동총회고자복지투쟁위원장 김도영 전국공무원노동자사업개혁투쟁위원장 등 연대발언과 마지막으로 홍성학 김명호교수 석방대책위원회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권오현임미영 참석하다.

16

●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일 평양발 기사에서 이북의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새로운 조선역사지도첩을 편찬했다고 밝히다. 역사지도첩은 고대로부터 근대까지 반만

년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총 100여도의 역사지도들로 구성되었다. 신문은 “역사지도첩에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 이조 등 역대국기들의 시기별 영역을 반영한 지도, 반침략전쟁과 반봉건투쟁, 대외관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한 지도들이 연대순에 따라 배열되어있다”면서 “일부 역사지도에는 년대와 역사적 사건, 사실들을 해설하는 문장을 삽입하고 조선역사 시대구분표를 첨부하였다”고 한다.

17 -----

이북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대변인은 이명박대통령의 국정연설내용과 서해해상에서의 군사활동 그리고 전쟁연습 등을 문제 삼으며 ‘전면대결태세진입’을 선언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보도하다. 대변인은 <조선중앙TV>에 직접 출연하여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금성철벽으로 지키기 위한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내외에 천명한다’며 ①매국역적 이명박악도와 그 패당이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부정하고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우리(북)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②피괴군부 호전광들이 역적의 이른바 통수이념에 맹종하여 우리의 대한 선세타격과 응징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형편에서 그것을 깨물개기 위한 우리 혁명무장세력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이고 ③우리의 성의있는 조치와 이량을 무시하고 우리측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 서해해상군사분개선을 그대로 고수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한다.

이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에서 ‘실사조.미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된다해도 미국의 핵위협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한 우리의 핵보유지위는 추후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보도하다. 대변인은 ‘최근 미행정부에서 조선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관계정상화가 될 수 있다’는 관계정상화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포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것은 관계정상화를 마치 우리에게 주는 선사품인것처럼 여기는 미국의 대국주의 근성의 발로이며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에 대한 왜곡’이라고 말한다. 또한 ‘미국이 조미관계 정상화를 우리 핵포기의 대가물로 관계정상화나 경제지원같은 것을 바라서가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없이 살 수 있어도 핵억제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조선반도의 현실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없이도 수십년을 살아왔으며 지금도 끔찍없이 살아가고 있다. ‘핵문제와 관계정상화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조미관계정상화가 아니라 우리민족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스럽게 지키기

위한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조선반도 핵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핵무기 대 우리 핵무기 문제이다’라고 답변하다.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사)통일맞이 늦봄 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주최로 100여 명의 추도객이 참가한 가운데 故 문익환 목사의 15주기 추모식’이 열리다.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고인의 회고와 이창복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의 추모사 낭독이 있었음 ‘봄길’ 박용길 장로와 가족들을 비롯해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정동익 4월 혁명회 상임의장,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표명렬 평화화해군인회 상임대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헌화하다.

18 -----

구선옥 정혜은 회원이 만남의 집에 들러 선생님의 점심 채거 같이 나누고 돌보아드리다.

무진리 훈련장 확장저지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2차 수련회아가 파주 오희리 원두막 휴게소에서 있었음. 점심 후 영상상영과 참가자소개에 이어 박석준 집행위원장 사회로 김종일 평통사사무처장의 여는 말에 이어 발제와 질의 및 토론이 있은 후 후 공대위사업계획안 보고 검토하고 이른 저녁먹은 후 수련회마치다. 임미영참석하다.

6.15한마음통일산악회의 1월 산행으로 북한산을 다녀오다. 길은역에서 22명이 모여 국민대까지 걸어가다 다시 북악매표소-영불사-형제봉동부능선-형제봉-일선사입구-대성산상-정릉으로 하산하는 코스로 다녀오다.(산행기 보심)

19 -----

경기 파주시 임진각자유의 다리에서 민주노동당은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를 위한 민주노동당 기자회견’을 가지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북측의 전면대결태세 발표에 대해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선제공격과 흡수통일 운운하면서 대북적대정책을 추진해왔던 이명박 정부의 그릇된 접근이 물고 온 파국적 결과라며 6.15,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도라고 밝히다. 윤한택 남북공동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노수희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의 발언에 이어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적은 30여 기의 ‘통일연’을 날리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영순 자주통일위원장, 오병윤 사무총장, 우위영 최고위원, 최형권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및 당원 30여 명을 비롯해 임방규.권낙기 통일광장 공동대표, 배은심 유가족대표 박중기 추모연대 상임의장 등 각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 하다.

● 대북정책정체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은 통일부장관에 현인택 고려대학교수를 내정하다. 청와대는 현인택 내정자가 '비핵개방3000구상'에 주도적으로 역할했다며 국방분야에는 상당한 식견을 가진 통일안보전문가라고 밝히다. 그러나 6.15 10.4 선언에 배치되는 '비핵개방3000구상'을 주도하고 안보전문가를 통일부장관에 내정한 것 자체가 이명박정부의 반통일정부임을 반영한 것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

● KBS PD협회는 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며 '공영방송사수를 위한 KBS사원행동 대표 등 직원 8명에게 대한 사측의 중징계에 반발, 제작거부를 결의하다. 또한 KBS기자협회는 총회에서 제작거부안건에 대한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며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어 사장선임 반대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노조탄압으로 규정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KBS를 지키는데 투쟁할 것이며 조합원 징계철회를 촉구하다

● 전국철거민연합 용산1구역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 30여명이 이날 오전 5시 30분경 철거에 따른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이 구역 철거건물인 남일당빌딩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이나 시행자 용산구청 등은 이들의 요구에 대한 어떠한 대화시도도 없이 철거강행을 위한 진압에만 신경을 쓰다. 경찰 또한 당사자간 대화 중재 등 노력보다는 진압에만 몰두, 경찰특공대배치를 비롯 전의경 3개 중대, 물대포자 5대, 사다리차 2대 등을 배치하고 용역회사직원들이 농성건물에 침투, 페타이어 등을 태우면서 농성철거민을 압박자극하는 것을 방관하다. 오히려 농성해산을 명령하며 물대포를 쏘아대기만 하다. 농성철거민들은 화염병으로 대항하며 용역직원의 건물침투를 막아내면서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장기농성에 대비하다. 경찰은 농성자들이 시너 화염병 등 인화물질을 다량 준비하고 있음을 발표하다. 전철연은 성명을 내고 농성철거민들의 요구사항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다. (우리의 주장보심)

20 -----

●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교과서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대책위원회(준)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으로 인한 학생의 교육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은 학생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며 학교교사 및 학부모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근현대사 특강을 통해 고등학교에 애기했던 뉴라이트 역사인식이 통일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중학교, 초등학교로 내려오고 있다"면서 "이는 교과서 문제만이 아닌 학교 전체의 교육 이념을 30, 40년 전 냉전이데올로기로 돌리려는 음모"라고 지적하다. 공대위는 "우리는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며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

할 것"이라며 "특히 헌법 제31조 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민주주의 교육의 기틀을 세우는데 헌신할 것"이라고 밝히다.

● 충무로 창미디어에서 후원회소식 207호 교정작업을 하다.

● 경찰은 이날 이른 새벽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남일당빌딩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철거민 진압을 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진테너너박스와 건물 직접투입)하고 물대포를 쏘아대며 강제해산에 나서다. 이 과정에서 농성망루에 불이나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다. 또한 17명이 크게 다쳐 용산중대병원과 순천향병원 등에 후송 치료를 받다. 이러한 경찰의 살인진압에 분노한 시민들이 현장에 달려오고 유기족과 철거민 그리고 정당대표들이 참사현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이 폭력으로 막아내다. 참사현장에서는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권력의 과잉진압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이명박정권과 공안당국을 규탄하다. 또한 대통령의 사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구속을 촉구하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긴급하게 꾸려진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비상대책위' 주최로 '살인진압 이명박규탄 및 희생자(열사)추모대회'를 열고 각계의 추모사와 규탄발언이 이어지다. 이날 경찰은 유족도 모르게 시신을 빼돌려 유족 동의없이 부검을 했으며 시신을 순천향병원으로 옮기다. 2,000여명의 추모대회 참가자들은 '살인정권규탄과 김석기경찰청장내정자 구속' 등 구호를 외치며 추모행진에 나서다. 그러나 경찰은 곤봉과 방패 물대포로 막아서며 부상자가 속출하다. 추모대열은 삼각지-서울역-명동으로 이동하며 살인진압과 공안통치를 규탄하다. 임미영 권오현

● 6자회담 남측차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북핵기획단장이 이북과 미사용연료봉처리문제를 협의차 대표단을 이끌고 4박 5일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베이징공항에 도착하다. 황단장을 비롯 외교부통일부 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15일 방북 영변핵시설을 돌아보고 북이 보유한 14,000여개의 미사용봉 규격과 보상관계를 점검하고 6자회담 북측관계자와 회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용산 국방부민원실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시민사회단체성원이 함께 한 가운데 '제86차 평화군축집회'가 열리다.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이명박정권의 도발적인 대북정책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투쟁할 것과 대미굴종 남북관계 파탄 이상희 국방부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중고고물 <아파치 롱보-AII-64D> 구매를 저지시킬 것 등을 결의하다.

21 -----

●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판사 최병선)는 전교조 일부 교사들

을 회원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자료를 올린 혐의로 2007년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직 중학교 교사 김맹규, 최화섭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자료들에 대해서도 교육상 목적으로 판단, '이적목적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규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김씨 등이 반국가단체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보유하거나 게시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이번 결정으로 지금까지 전교조와 통일교육, 통일교사들에게 덧씌워졌던 친북 반국가, 이적 행위 등의 모든 혐의는 보수언론의 조작이며, 공안 세력의 무리한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하다.

● 용산참사 현장에서 이틀째 촛불추모대회가 열리다. 경찰은 경찰버스로 차도에 벽을 싸고 참가자들의 통행마저 막아나서다. 이날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작가인 조세희 씨가 재개발로 가진다는 살찌우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는 내 쫓기다 못해 죽임까지 당하게 되었다며 살인잔압을 규탄하다. 경찰은 추모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불법집회라며 해산압박을 가하다. 집회를 마치고 다시 행진에 들어가다.

● 전국민조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에서 '제 45차 대의원대회'를 열고 '2008사업평가와 2009년 사업계획 방향'을 심의하면서 제1호 안전이었던 <진보연대가입안>이 4호안건으로 늦추는 것을 비롯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노동자 총고용보장확대 및 사회안전망 확대 강화 반노동 반민족 반평화통일 등 MB악법 정책폐기 신자유주의의 극복 대안수립 등 3대 과제와 11대요구안을 마련하고 이명박정권과의 결사투쟁 노동자 민중의 해방과 미래를 열어나가는 투쟁결의안 진보정당 통합권고안 등을 채택하다. 그러나 대의원들이 회의 중 자리를 비우게 되어 진보연대 가입안은 정족수가 모자라 논의도 못하고 대회를 유회사키다.

●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이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이북의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중국 대표단을 위해 연회를 마련했으며, 연회에는 중국 대표단과 류샤오밍(劉曉明) 평양주재 중국대사, 대사관원들이 초대됐고 북측에서는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태중 부부장,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하다. 최 비서는 연설에서 "두 당 최고 영도자들의 관심 속에 조선노동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의관계는 좋게 발전해 왔다"면서 "공동의 노력에 의해 '조·중(북한-중국) 친선의 해'인 올해에 조·중 친선이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하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소식 208호 발송작업이 있었음 박희성 문상봉선생님과 모성용 소수영 임미영회원 함께 하다. 후원회소식207호를 회원 981부와 해외 17부 발송하다

● '6.15해의추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문동환 목사를 비롯한 재미동포 124명은 남북관계 복원을 촉구하는 재미동포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불행하게도 남과북의 관계는 지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남과 북이 서로를 비방하며 대화를 중단한다면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는 불안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명박정부가 6.15, 10.4선언이행의지를 밝혀야 한다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남북이 취해야 한다 △인도적 협력을 멈춰선 안 된다(식량지원과 이산상봉 재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특사방문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하다.

22 -----

● 용산 철거민 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빌딩 앞에서 사흘째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추모촛불집회가 열리다. 경찰의 봉쇄 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촛불집회에 참가한 500여 시민들은 이상훈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다. 경찰은 집회가 끝날 무렵부터 경고방송을 내보냈고 해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추상분인 '캡사이신'를 분사하겠다고 어름장을 놓아 집회 참가자들의 야유를 받기도하다. 한편 사고 현장 인도에는 임시 분향소가 마련돼 오가는 시민들이 헌화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농성 천막들이 자리 잡고있다. 경찰은 사고 건물 출입구를 모두 봉쇄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한양석부장판사)는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으로 18년 옥고를 치루었던 이른바 '진도간첩단사건'의 석달윤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중앙정보부 등에서 50일간 불법감금 당하며 온갖 고문에 의해 자백한 사실들은 임의성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다. 석달윤씨는 소감에서 '반드시 오는 같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으로 확신했었다.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변호인들과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관련단체에 감사한다'고 하다.

● 이북의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호금도(후진타오) 중국주석의 친서를 갖고 온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왕자루이 부상을 면담하고 손님들에게 오찬을마련하시었다'고 보도한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보다 앞서 중국대표단을 김영일 내각총리와 최고인민회의의장인 최태복 노동당비서를 만났다고 하다.

23 -----

● 서울역 광장에서 용산철거민살인잔압범대위 주최로 '이명

박정권퇴진 용산철거민 살인잔압범국민추모대회'가 3,000 여시민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린다. 문화예술인들의 추모 퍼포먼스로 시작하여 참사 유가족과 철거민관계자들이 무대에 올라 진실규명을 위해 힘써달라고 호소한다. 고 이성수 씨의 부인 권명숙님 인태순 전철연사무국장 진상조사단 이상운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사무국장 박진 인권활동가 박래군 추모대회 공동집행위원장 등의 규탄과 추모발언이 있었음. 추모대회를 마치고 용산참사현장으로 행진에 나섰으나 경찰제지로 서부역쪽을 빠져 충정로-신촌방향으로 이동하다. 행진대열은 '김석기거숙' '이명박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신촌로터리에 집결하다. 이어 동교동을 거쳐 홍대 정문쪽으로 이동, 뒤따르던 경찰병력 500여명과대치 속에 정리집회를 하고 해산하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일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던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상임공동대표와 주재준 사무처장이 보석석방되다. 서울구치소앞에서는 진보연대소속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출소환영식을 가졌다

☞ 설을 맞아 양지탕재원 양희철선생님께서 낙성대 만남의 집에 삼겹살 한 가득 선물하셨습니다.

☞ 설을 맞이하여 만남의 집 선생님들께 김호현부회장 영양만 점인 쇠고기곰국거리 한 박스 선물드렸습니다.

☞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설을 맞아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시는 세분 선생님들께 내의를 선물해드렸습니다

24 -----

☞ 중국 <신화통신>은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 친서를 갖고 방북한 황지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 '당사국들과 평화적으로 함께 지내기를 희망한다'며 '조선반도 정세의 긴장상태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다. 또한 후주석은 친서에서 편한 시간에 중국을 방문해줄 것을 원하며 중국방문을 환영한다고 했고 김정일위원장은 방중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전하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왕자루이 부장을 접견하는 사진 10장도 함께 공개했으며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하다. 왕부장은 24일 북경으로 돌아왔음

26 -----

☞ 용산참사 현장에서 지난 22일부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농성단을 격려방문하다. 강기갑대표와 노인회장박창균목사님 등을 뵙고 감사드리다. 또한 참사현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문상하고 전철연회원들을 격려하다.(권오현)

☞ 민족명절 설을 맞았습니다 모든 가정들 모든 사회구성원 우

리겨레 모두에게 고유명절을 맞는 기쁨과 평화롭고 행복한 자주와통일된 세상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낙성대만남의 집 선생님들께 설세배를 드리고 여러 선생님들께 설을 맞아 전화로 설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익화원과 권오현회장님 함께 했습니다.

27 -----

☞ 만남의 집 선생님들께 김혜순 이운섭이정희부부 가현 제현 안병길 임미영 회원 세배드리고 음식나누어 먹다. 4시에 권오현회장과 함께 한남동 순천향병원으로 용산참사 열사들의 분향소를 찾아조문하고 조의금을 전하다

☞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민주.민노.창조한국.진보신당 등 법아원과 민생민주국민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폭력살인잔압규탄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제정당 사회단체 각계인사 기자회견'을 열다. '이명박은 물러가고 악법들은 물러가라'란 슬로건 아래 박석운 민연련대표의 취지 및 경과보고 주종한동국대병예교수 임기란 전민기협상임대표 등 격려 말 정세균민주당대표 강기갑민주노동당대표 유원일 창조한국의원 노회찬 진보신당대표 등의 결의발언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공권력의 명백한 폭력잔압으로 빚어진 상태에 대해 이명박 한나라당정권을 '선진상규명'이라는 방패로 살인잔압 책임자르 비호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규탄하다. 또한 용산참사진상규명과 함께 2월 국회에서날치기가 예상되는 신문법.방송법 개악 등 언론악법 사이버 모욕죄, 집시법 개정안, '국정원 강화 5대 악법' 등 각종 반민주 반민생 악법저지에 초당적 협력과공고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또한 2월1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용산폭력잔압규탄 및 MB악법저지 범국민대회'를 공동개최하기로 하다.

28 -----

☞ 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이셨던 박용길장로님을 수유리 '통일의 집'으로 찾아 뵙고 설인사를 드리고 변동에 살고 계시는 통일원로 박정숙 김선분선생님을 찾아 뵙고 설인사드리다. 권오현

☞ 뉴욕 컬럼비아대 한국학연구센터에서 'KEDO(코리아반도에너지 개발기구)의 교훈'이란 주제로 열린 찰스카트만 전 KEDO 사무총장은 '북핵비확산 합의를 위해 협상을 하는 국가가원자력건설프로젝트에 족적(성과)를 남기고자 한다'면 미국이 1994년에 북에 경수로 제공합의를 할 당시처럼 한 손을 내밀면서 지원은 전혀 하지 않으려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오바마정부가 이북의 핵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경수로제공 등 어떤 방식으로든 에너지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다.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740회 목요집회를 열다. 이영성임

의장의 여는 말 권오현 공동의장의 용산철거민살인잔압구탄발언 등이 있었음

- 용산참사현장에서 용산참사범대위 주최로 '2차 범국민추모대회 개최 관련 '살인잔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다. 박대군 공동집행위원장 사회로 정광훈 공동대표의 여는 말 이정희 민주노동당의원 등 살인잔압구탄발언 등이 있었고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회견문에서 용산범대위는 경찰의 부당한 불허조치에 구애받지 않고 반드시 2차추모대회를 열겠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용산 철도 웨딩홀에서는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 살인잔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의하다. 김호현부회장 참석

30 -----

-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리명박정권이 반공화국 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전쟁점경의 최악의 상태로 몰아 놓은데 대해 단죄 규탄하면서 조성된 사태와 관련 ①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혐의사항을 무효화하며 ②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협력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의 폐기를 정식 선포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조평통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전면 비난하면서 "역적패당에 의해 지난 시기 북남사이에 채택된 모든 합의들은 이미 사문화되고 백지화 됐다"며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만이 과거 북남합의들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무효화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명분과 반공화국 '인권' 소동, 뼈라살포와 모락방송강화, '급변사태'와 '선제공격'론의 제창 등으로 북남합의 사항들을 무참히 파괴유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며 그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미상원군사위원회 갈.레빈위원장은 부시행정부의 북핵문제 접근방식을 비판하면서 북과 양자대화를 재개해야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하다. 갈레빈위원장은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가 상원군사위원회 111회 회기에 다룰 중요의제의 하나라며 부시행정부가 과거 이런 양자회담을 북을 악의제국이라며 중단한것은 우리의 목표와 북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있어 건설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새행정부가 양자대화방향으로 나갈것이라고 내다보다.

- 미국무부가 <자유북한방송> 등 탈북자 단체와 반북단체

들에 3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이날 보도하다. 과거 미국의 민주주의기금(NED)을 통한 간접지원이 아니라 국무부가 직접 탈북자 단체들에 자금 지원을 한 것은 정권붕괴를 노린 침략행위나 다름없다 할 것임. 미국 내 대표적반북단체인 <디펜스포럼>의 수잔솔치 대표의 말을 인용한 RF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자유북한방송> <탈북자인권연대> <성공적인통일은 만들어가는 사람들> 등 탈북자단체와 다른 북인권단체 등에총 300만달러를 지원했다고 하다.

- 대법원 형사2부(주심판사 양승태)는 상고심에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의장 이승호)'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내려 전상봉 한청 전 의장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의 모든 상고내용을 기각한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한청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다"며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취지에서 원심이 한청을 이적단체로 판단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밝혔다.

31 -----

- 청계광장이 경찰에 의해 봉쇄되자 청계천보전교와 광통교 사이 예금 보험공사 앞에서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잔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주최로 용산철거민 희생자 제2차범국민 추모대회를 열다. 경찰이 사전 불허통보와 원천봉쇄로 모전교와 광통교 사이 무대차량 제일 앞쪽에는고인의 영정을 가슴에 품은유가족들이 자리를 잡고 그 뒤로 경찰의 봉쇄를 뚫고 나온 시민들은 자리를 가득 메운 채 '근조 열사정신 계승'이라는 검은 리본을 단 8천여 시민들은 '김석기, 원세훈 구속수사', '학살만행 이명박 퇴진'이라는 손 팻말을 높이 들며 외치다. 추모의례에 이어 방인석목사 이한열열사모친인 배은심유가족회장의 추모발언이 있었고 숨진 용산 철거민 이상림 씨의 딸 이현선(40) 씨는 무대에 올라 '아버지 품에 안겨서 차마 하지 못했던 말,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하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발언과 노래배 우리나라가 추모공연을 김해자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이 추모사를 낭독하다. 추모행사를 마친 시민들은 유가족들앞 선 가운데 김석기구속 이명박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그 뒤를 따르며 을지로1가-사거리-롯데백화점을 거쳐명동성당에 도착하여 권오현양심수후원회회장의 정리발언을 끝으로 추모대회를 마치다.